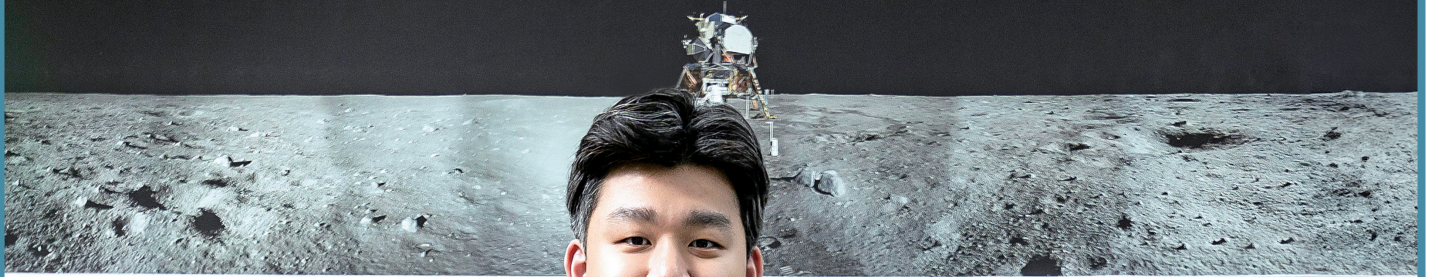




산불 피해 지역 녹조 중점관리

6월 5~30일은 국악주간

청년기자 '청년카페' 체험기



탐사 로봇이 간다! “2032년 달에 태극기를”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 대표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여는 건강내일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 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7월 31일(목)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콜센터



남 녀의 향 기, 멀 구 슬 나 무

요즘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선 연보라색 꽃이 잔뜩 핀 멀구슬나무를 볼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아름다운 꽃이다. 나무에 다가가면 고급스럽고도 향긋한 꽃향기가 황홀할 지경이다.

멀구슬나무 꽃은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연보랏빛으로 자잘하게 핀다. 꽃을 보면 꽃잎과 꽃받침조각이 5~6개씩 있고 가운데에 자줏빛의 독특한 원통 모양이 보이는데 10개의 수술이 합쳐진 것이다. 여름엔 붉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시원한 그늘을 만든다.

멀구슬나무는 히말라야 등 아시아와 호주가 원산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심어 키운 나무다. 수도권 사람들에게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가면 동네마다, 어느 곳은 집집마다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예 가로수인 곳도 있다.

멀구슬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도 볼 만하지만 사실 열매가 달렸을 때 더 대단하다.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을 지나다보면 대추 모양의 둥근 노란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왜 멀구슬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을까? 예로부터 딸을 낳으면 시집갈 때 장롱을 해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남쪽에서는 오동나무 대신 멀구슬나무를 심었다. 또 옛날에는 멀구슬나무 열매를 구충제로 이용했다고도 한다. 이렇게 쓸모가 많은 나무니 동네마다, 때로는 집집마다 멀구슬나무를 심어 기른 것이다. 제주4·3사건을 다룬 현기영 중편소설 '순이삼촌', 이종섭이 6·25 때 제주도에서 피란생활을 하며 그린 '섞임이 보이는 풍경'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다.

멀구슬나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무구슬, 즉 '목(木)구슬'이 변한 이름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다.●

글·사진 김민철

야생화와 문학을 사랑하는 일간지 기자. 저서로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 '문학 속에 핀 꽃들', '꽃을 사랑한 젊은 작가들' 등 다수가 있다.

환경부 승인 필요한 외래종 15배 늘었다



외래종 가운데 국내 생태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이 10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 할 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하다. 2015년 55종이었던 유입 주의 생물 지정 종수는 2024년 853종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체계도 18개 분류군에서 40개 분류군(1속 39종)으로 구체화됐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생물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양수·보관·운반·유통이 금지된다. 유해 외래종 경계가 강화된 데 대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으로 외래종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수입과 거래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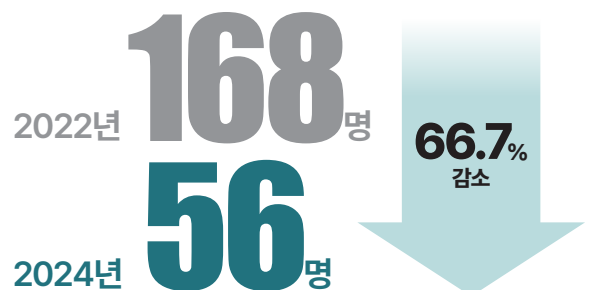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는 6만 1230종이다. 2015년엔 4만 5295종이었다. 곤충류, 균류 및 미생물(세균류, 고세균류)이 대폭 증가하며 1만 5935종이 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생물종수를 10만여 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 생물종수도 2015년 대비 32% 늘었다. 2015년엔 164만 9000종이었는데 2024년 들어 218만 4000종이 됐다.

2023년 정부로부터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도를 받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앞서 2023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여한 3만 837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168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112명(66.7%)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사망자 수는 2022년 105명이었는데, 컨설팅을 받은 후 2024년 사망자 수가 17명으로 83.8%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만 8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조업은 5회, 건설업은 7회, 기타 업종은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컨설팅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소





2025년
선정·지원

50곳

성장 가능성 높은
'아기거대신생기업'

기업가치가 300억 원을 넘거나 20억~1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들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기거대신생기업' 50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이는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는 '세계적 거대신생기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총 217개 기업이 신청해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 가운데 43개사, 약 86%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으로 선정된 50개 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성과연동 보증제도'를 도입해 선정기업이 후속 투자와 매출 등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심사 없이 추가로 보증을 지원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국제 기업설명회(IR) 및 국제 기술 박람회 참여 ▲코트라(KOTRA)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프로그램 ▲전략적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소방청이 올해 폭염 구급대책을 지난해보다 닷새 이른 5월 15일부터 가동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온열질환에 의한 구급출동 건수는 전국적으로 3164건, 이 중 2698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자들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52.3%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구급출동 건수는 8월에만 1829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7월 685건, 9월 331건, 6월 278건, 5월 41건 순이다. 시간대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출동 건수가 전체의 32.6%를,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3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하루 일조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20년 686건, 2021년 906건,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60대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119 구급차에 조기 형태 등의 얼음팩과 소금, 물 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폭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주 기자

온열질환 해마다 증가

2024년

3164건

2023년 2436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출동 건수	686	906	1153	2436	3164
이송 인원	646	819	1057	2153	2698

자료 소방청



2025.06.02-08

No.807

K-공감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발행일 2025년 6월 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교학사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커버스토리

06

탐사 로봇이 간다! “2032년 달에 태극기를”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 대표
 대한민국 우주로 날다

- 01** 꽃 하나 문학 한 줄
 남녘의 향기,
 멀구슬나무
- 02**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환경부 승인 필요한 외래종
 15배 늘었다 외
- 정책+**
- 14** 민생브리핑
 경부고속도로 버스 환승센터 착공 외
- 19** 정책플러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코로나19 백신 맞으세요!
 중화권 재확산 비상
 싱크홀 위험 지역 어디?
 국토부 조사 결과 공개한다

- 23** APEC 정상회의
 실무조정회의 열고 준비 상황 점검
- 24** 포커스
 중기 해외인증 획득 쉽게!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2025 녹조 중점관리 방안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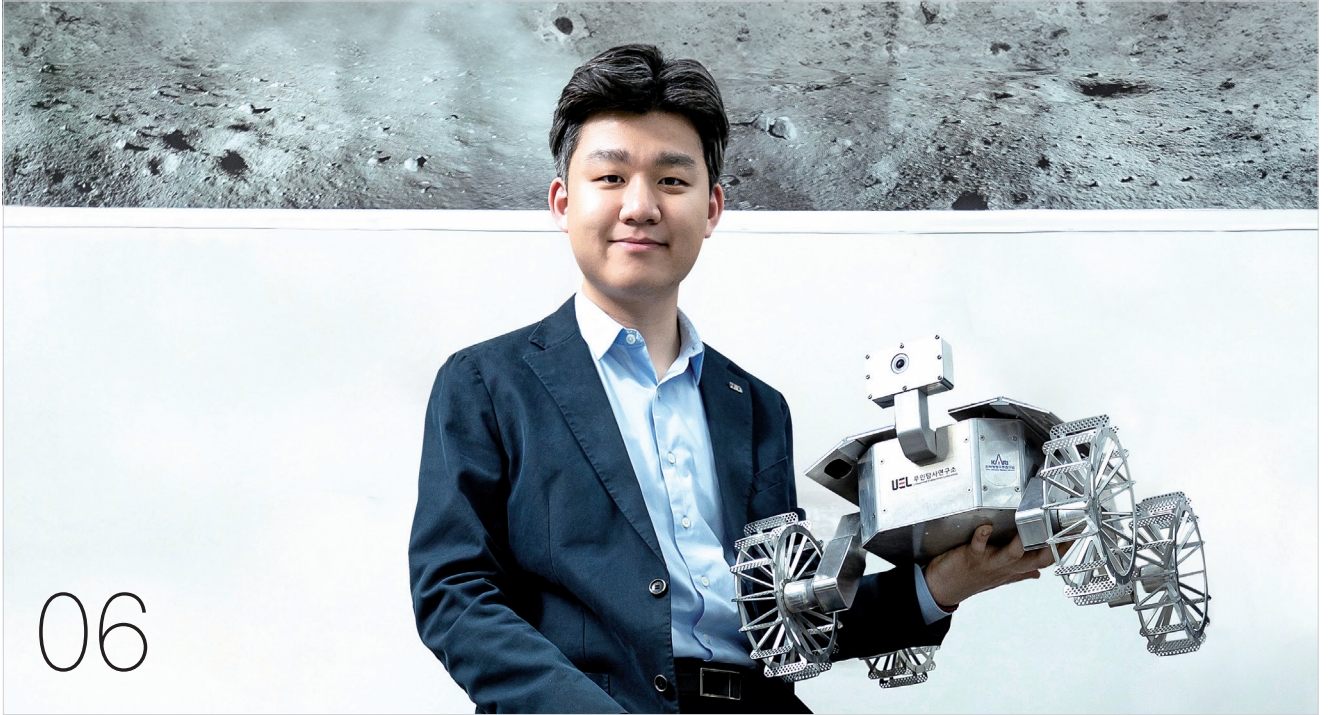
- 2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청소년 81% “부모와 관계 만족”
- 30** 도전 파서를
 오늘전통창업 우수 청년기업
 더바른컴퍼니 전명준 대표
- 34** 함께 키워요
 우리 아이도 1000원 읽기 도전해볼까?
- 38** 어피티와 함께하는 생생 MZ 특
 늘어나는 무인 가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40** 정책현장
 아이들 배움터가 어르신 일터로
 ‘카페 가재미38’
- 44** 공감해보니
 청년기자의 ‘청년카페’ 체험기

- 48** 문화
 6월 5~30일은 국악주간

문화+

- 50**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충남 아산시 현충사
- 54** 문화
 숲속 여름휴가 즐기세요!
- 56** 스포츠
 37세 신지애,
 작은 거인의 신화는 계속된다
- 58** K-명품을 찾아
 신의 작품? 성덕대왕신종 울림의 비밀
- 60** 건강&운동
 굵은 어깨 세우기!
 핵심은 세 개의 근육이다
- 62** 함께 즐겨요
 K-연극으로 재해석한
 셰익스피어 십이야 외
- 64** 독자공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탐사연구소 조남석 대표

우주에 빠진 소년 뉴스페이스 주역으로 “2032년 달 착륙선에 탐사용 로버 탑재 목표”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26일 누리호 5차 발사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발표됐다. 이를 위해 6월부터 단 조립에 돌입한다고 한다.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어 2027년까지 매년 1회씩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발사체 기술의 고도화와 자립화 기반 마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리호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달’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범정부적 장기 우주 탐사 로드맵도 가동 중이다. 2032년 달 착륙선,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선을 각각 발사하는 게 목표다.

자체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도 가능해진다. 달 탐사에서 우주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탐사 활동이다. ‘달 탐사 로버(Rover)’를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로버는 달이나 행성 표면을 돌아다니며 지형, 온도 등 각종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자원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차량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우주경제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달 탐사 로버를 시현한 바 있다. 부탑재 위성 기관으로서 누리호 4·5차 발사 작업에도 참여한다. 최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으로부터 ‘로버용 전기파워트레인’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달 탐사가 왜 중요한지, 로버 기술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에게 들어봤다.

한국전기연구원이 무인탐사연구소에 로버용 전기파워트레인 기술을 이전했다고. 어떤 의미인가?

배터리 전원이 바퀴 휠을 구동시키기까지 전기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장치들을 전기파워트레인이란 한다.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려면 로버용 전기파워트레인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품 가격이 산업용의 10배 이상인 데다 국가 규제에 따라 구매 자체가 어려운 품목도 있다. 구매가 가능하다 해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부품은 크게 일반급·항공급·우주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이번 기술 이전은 우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우주급 부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전기를 쓰는 물건은 모두 열이 발생한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그 열을 식



무인탐사연구소가 개발한 2륜 로버
'스카라브'는 2027년 미국 발사체에
탑재돼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무인탐사연구소는 탐사 로버가 인공 월면토를 달리는 실험을 통해 바퀴 형태를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사진 무인탐사연구소

허준다면 우주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열을 식히지 못하면 부품이 녹아버린다. 우주급 배터리·모터·변속기 등은 극한 기온(우주의 낮은 섭씨 127℃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영하 173℃까지 곤두박질친다)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전기파워트레인이다.

전기파워트레인 기술을 포함해 무인탐사연구소가 지금까지 확보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달 위에서 주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월 관련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품에서 나오는 열을 로봇 차체가 견딜 수 있는 기술도 보유 중이다. 다만 모터나 배터리는 수입산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독자적 달 탐사’를 달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의 모터와 기반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가 개발한 차체에 넣어 실험하는 공동연구 단계 초입에 있다.

달 탐사 로버의 목적이 궁금하다.

세계 각국이 왜 달에 가려고 하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204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희토류(반도체·배터리 소재, 방산사업에 필수인 희소 광물)’가 대거 매장돼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나 달에 대한 명확한 지형 데이터가 없어 로켓이 광물이 있는 장소에 정밀하게 착륙하는 것이 어렵다. 그 역할

66 고등학생 때부터 과학 행사를 계속 찾아다녔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항우연 페이스북 2년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99

을 대신할 수 있는 탑재체로 로버가 각광받고 있다. 로버의 첫 임무는 광물 채집과 분석이다.

정확한 맵 정보가 없는데 로버는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

로버의 경쟁력이 바로 GPS 없이 동작하는 것,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지구는 전봇대, 건물과 같은 객체가 많고 GPS, 나침반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로봇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달에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또는 착륙선과 교신하며 위치를 보정해야 한다. 로버는 에어태그 기술처럼 디바이스끼리 통신하며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 위치를 얼마나 잘 찾아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로버가 우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우주물체는 기본적으로 열·진공시험을 거쳐야 한다. 물체에 열을 가해 열균형을 체크하고 진공에서도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다음 내방사전·진동시험까지 거치면 우주에 나가서도 동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달 탐사 로버는 여기에 하나 더, 입자가 매우 고운 흙 위에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시험해야 한다. 무인탐사연구소는 아폴로 14호가 달에서 가져온 흙을 모방해 제작한 ‘인공 월면토’를 보유하고 있다. 그 위를 달리는 실험을 토대로 바퀴 형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행성

모사 환경(MDRS, 미국 유타주 사막의 화성탐사 연구기지)에서 로버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18년 설립된 무인탐사연구소는 2륜 초소형 로버 ‘스카라브(Scarabs)’와 4륜 중형 로버 ‘해태(Haetae)’, 접이식 로버 ‘거북이(Geobugi)’를 개발 중이다. 세 개 로버는 배터리로 움직이며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 전력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개발 속도로 따지면 해태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탑재 비용이 적은 스카라브가 2027년 미국 발사체를 타고 먼저 우주로 떠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무인탐사연구소는 2025년 누리호 4호기, 2026년 누리호 5호기에 로버의 핵심 부품을 싣는다. 실제 우주환경에서 부품 작동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자체 개발한 달 탐사 로버 완전체를 2032년 한국형 달 착륙선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스카라브가 처음 실리는 발사체가 미국산이라는 점이 아쉽진 않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 원하는 대로 2032년 한국형 발사체(차세대 발사체)에 우리 로버를 실어보내더라도 정작 달에서 역할을 다 못해내면 안되지 않나. 2027년 임무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녹여내 더 완벽한 로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많아 야 성장도 빨라진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나?

서방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발사체나 인공위성 개발이 늦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위성, 발사체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다. 나아가 우주강

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과 더 많은 우주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제 우주프로젝트들이 달·화성 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열 번째 가입국으로서 로켓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달 탐사 로버 개발 스타트업을 창업한 배경이 궁금하다.

나로호 발사, 이소연 박사의 우주행을 보고 자라면서 막연히 우주에 로봇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꿔던 것 같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부터 과학 행사를 계속 찾아다녔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항우연 페이스북 2년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또 항우연 행사에 가서 방명록을 쓰고 있는데 연구원이 내 이름을 보더니 원장실로 끌고 가 “이 친구가 그 친구”라고 하더라. 당시 원장님이 “너는 연구원에 들어오지 말고 창업을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고 이 분야를 떠날 수 없는 결정적인 일이 또 있었다. 버즈 올드린(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우주비행사)이 2015년 항우연 간담회에 왔을 때 “한국과 미국이 화성에 가는 미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원장님께 기념품을 선물했다. 근데 원장님이 이걸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게 다시 주셨다. 그날로 화성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의 빛이 생겼다. 도망칠 수 없게 돼버렸다(웃음).

앞으로의 바람은?

우리 힘으로 만든 로버를 2032년 달 착륙선에 탑재하고 싶다. 대한민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최초 자력 우주발사체 ‘누리호’,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최초 달 표면 임무 수행은 무인탐사 연구소로 기록되고 싶다. 우리가 개발한 부품을 우주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기술력을 끌어올려 보겠다. ●

이근하 기자

대한민국 우주로 날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시동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현실로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약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2026년 5차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월 26일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6월부터 5호기의 단 조립에 착수하며 2027년 6차 발사까지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호기 단 조립은 8월 즈음 완료될 예정이다.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에 대한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시험 중에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 위성들은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호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4차 발사는 2025년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국가기념일로 “우주항공 미래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우주항공의 날이 제정된 지 1년 되는 5월 27일 경남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우주청 임직원 및 우주항공분야 유공자의 헌신을 치하하며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청 개청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가 우주항공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중 교육부는 2024년부터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우주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인재 수요 증가에 발맞춰 추가 선정 평가를 실시했고 건국대, 경상국립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등 4개 교육연구단을 예비 선정했다. 우주탐사 기술부터 위성 부품·시스템까지 다방면에서 우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5월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다목적실용위성 7호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는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 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국내 우주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 조립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우주산업 분야 활력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

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요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



누리호 4호기에 탑재될 예정인 과학임무형 큐브 위성 '스누그라이트-3 (SNUGLITE-III)'. 군집위성 운용을 위해 필요한 초고난도 핵심 기술을 우주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 희망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주청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이다.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절차도 마련됐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000억 원 우주펀드 계획

앞서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조성하는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의 2025년 조성 규모를 70억 원으로 확정,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 운용사를 공식 모집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24년까지 총 205억 원 규모의 1·2호 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해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 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우주 분야 특성상 장기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투자 기간 5년 후 회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우주청은 2027년까지 5년간 지속 출자를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월 우주청이 2025년 민간·지자체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우주항공 기술경쟁력의 획기적 도약, 우주항공경제를 이끌 혁신 인재 육성을 목표로 발표한 7대 핵심 과제도 있다.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우주항공경제 생태계

“ 정부는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 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국내 우주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조성 ▲민간 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 추진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 확보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정책의 통합체계를 수립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직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능도 강화하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주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주위협대응 통합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우주물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주도국으로 발돋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나아가 민간 주도의 누리호 발사 추진을 통해 우리 주력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발사 비용 절감, 발사 빈도 확대를 위한 재사용발사체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우주수송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누리호 기술 이전과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이전 해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돕고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한 궤도수송선, 재진입 기술 등 탐색연구와 우주수송 분야 기술의 다변화 및 임무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첨단 위성 개발과 핵심 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인 초정밀 PNT(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 항법위성을 개발한다. 위성의 설계와 개발, 운영, 관리 등 위성체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참여국’에서 ‘주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2031년까지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KA)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관측 데이터의 처리·분석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 표면 임무 수행 탐재체 개발과 핵심 기술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 추진 시스템의 국산화 및 미래기술 확보 방안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르테미스(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등 협력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우주신흥국과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등 국제협력 다변화를 꾀한다. 적극적인 다자의 교로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현안 해결을 주도할 전망이다. ●

이근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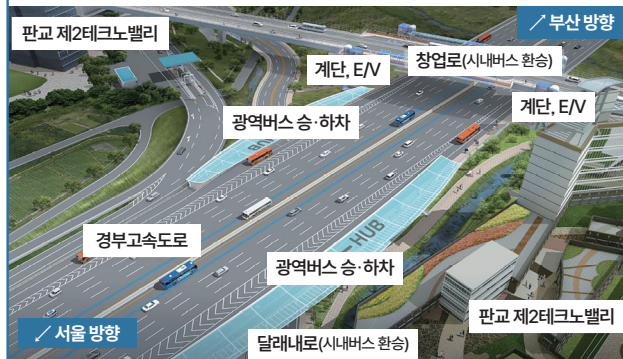
민생브리핑

경부고속도로 버스 환승센터 착공 서울~판교 통근 시간 30분 단축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앞 경부고속도로에 대규모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들어선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완공되면 판교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바로 이곳에서 하차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다. 서울~판교 간 이동거리는 약 5.4km(27.4km→22km) 단축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역시 기존보다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에 대규모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ex-HUB'는 고속도로를 뜻하는 영어 '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을 의미하는 '허브(HUB)'의 합성어다.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 자료 국토교통부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하루 평균 약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 ex-HUB가 완공되면 판교 ex-HUB에 내려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환승해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동 시간이 기존 62분에서 32분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ex-HUB와 같은 고속도로 환승시설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죽전 환승시설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환승시설 등 전국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ex-HUB는 물론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연결해 있는 GTX-A 구간인 경부선 구성역, 인천지하철 1호선인 문학경기장역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타당성 조사와 교통 분석 등을 거쳐 ex-HUB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동안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여러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중심점)으로 지속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학기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국가

장학금은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와 한 국장학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23일 저녁 6시 까지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I 유형과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연간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 인상됐다. 4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인상액은 연간 ▲1~3구간 40만 원 ▲4~6구간 25만 원 ▲7~8구간 15만 원이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 학기분 인상액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연간 인상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국가장학금 인상은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에게 적용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에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비상 정부 합동 수산물 수거·검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5월 26일부터 4개월간 진행될 정부 합동 수산물 수거·검사는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횃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 사용	충분히 가열 조리 (85°C 이상)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소비자에게 주로 횃감으로 판매되는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톡소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신속히 판매 금지·폐기 조치하고 이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항구와 바닷가 주변 횃집,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수족관 물을 수거해 비브리오톡소 현장 검사도 할 계획이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생산 단계인 양식장의 수산물 역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비브리오톡소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공판장, 도매시장, 판매업체 등의 수산물업체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와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온도관리 등 현장 위생관리 실태도 지도·점검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

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한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셀러블, 주문·배달, 인적자원(HR) 채용 등 4개 온라인플랫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고 5월 26일 13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조상품 꼼짝마! 전국 주요 시장 집중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 유통범죄 수사팀이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상표경찰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도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단속했다. 이 단속에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여·61)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를 집중단속하는 맞춤형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집중단속과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 각 상표권자와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5월 15일, 16일, 26일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펼쳤다.



특허청은 전국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 2월 20일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위반 사업장 행정·사법 조치

5월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에 나선다.

사람 신체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는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 사고사망자 중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고용부는 이번 고위험 사업장 감독·점검에서 사업장의 컨베이어와 배합·혼합기,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 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와 기구, 안전 인증과 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기계와 기구의 위험한 부분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법령 위반 사업장은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 숙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 표시 부착 등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14개 제조사 무상 안전점검

14개 국내 및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무상 안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14개 국내 및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2024년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현대, 기아, 폭스바겐·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는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제조사별 일정 확인 후 전기차 이용자가 서비스센터에 예약·방문하면 무상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중점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 상태와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들이고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차 제조사에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하며 리콜 이행 여부도 확인해 리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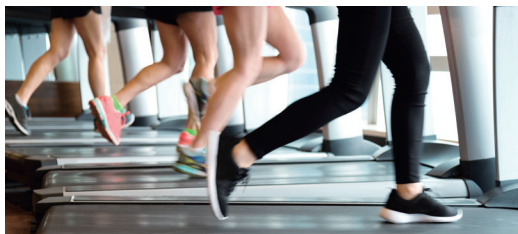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 중이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



사업자 사전접수 준비 시 필요 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1부(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 ② 가맹본리확인서
*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제와 일반 소득공제 결제 체계가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 ③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제출 불필요, 민간 체육 시설만 해당

부는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4월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등 항공·열차·문화 할인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탑승일 기준 6월 한 달간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 운임을 30~50% 할인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7일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하루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 입장, 동반 1인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남산케이블카(서울)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 남해안크루즈 관광(여수), LG전자 베스트샵, 삼성스토어 등도 보훈 대상자 및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조동진 기자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 ✓ 보증사고 이력·다주택자 여부 등 확인
- ✓ 횡수 제한 등 남용 방지 위한 장치도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마치고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조회·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의 내용이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전세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6월 23일부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 임대인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절러보기 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만약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동진 기자



대구광역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스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 ✓ 신재생에너지법 등 3개 개정법률안 공포
- ✓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 LPG 차량 셀프 충전도 가능

11월 28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캐노

피형(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행정 지원도 추진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에 충전이 확대되며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시설 신고제도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 시설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서울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모습.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맞으세요! 중화권 재확산 비상

- ✓ 홍콩·대만 등 코로나19 환자 증가
- ✓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 ✓ 백신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월 23일 질병관리청이 각국 보건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6.4%(4월 28일~5월 4일)를 기록했다. 홍콩은 13.8%(5월 11~17일)의 양성률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1년새 최고치다. 같은 기간 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가 1만 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폭증했다. 싱가포르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확진자 수가 1만 4200명으로 전주보다 27.9% 늘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에선 코로나19 양성률이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은 2.9%, 영국 5%로 나타났다. 일본은 감시기관당 확진자 보고건수가 0.94명으로 2.76명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낮고 올해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8.6%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여 전주 대비 5.8%포인트(P) 늘

었다. 지난주엔 2.8%, 2주 전엔 4.2%, 3주 전엔 6.9%였다. 생활하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농도도 전주 대비 3.6%P 증가했다. 정부는 증가 지속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100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 환자수의 59.3%(1376명)로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의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이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지정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접종률은 47.4%로 10명 중 5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

김광주 기자

싱크홀 위험 지역 어디? 국토부 조사 결과 공개한다

- ✓ 지반 침하 사고 예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 ✓ 국토부 자체 지반 탐사 실시해 위험지역 관리
- ✓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앞으로 지반 침하(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 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놴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말 전국의 굴착공사장 9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으며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6월 지반 침하 위험지도 전면 공개

먼저 국토부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고위험지역의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반 탐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반 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

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 범위를 올해 4360km까지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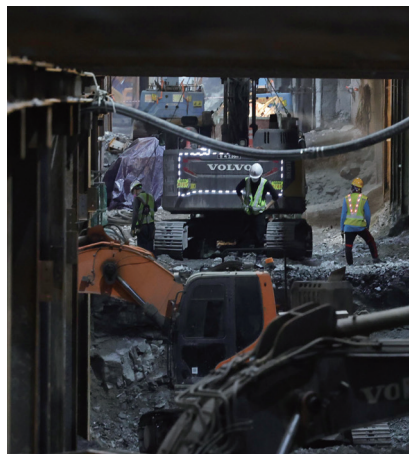
지반 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국민이 거주지역의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반 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5월 16일부터 JIS에서 볼 수 있으며 6월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는 굴착 깊이가 20m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한다. 공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나 지반 보강을 위한 차수공법이 현장 여건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공법선정 심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굴착공사가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 안전평가 분할 발주, 연약 지반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 깊이가 10~20m)이라도 연약 지반에 위치할 경우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 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반 침하가 총 867건(연평균 173.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강정미 기자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공구 지하 암반 굴착 현장. 사진 뉴스스

실무조정회의 열고 준비 상황 점검

항공·수송 등 후속조치 논의

APEC 관련 주요 회의 일정



2025년 APEC 정상회의 실무조정회의. 사진 외교부

7월 26일~8월 15일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7월 31일~8월 1일	반부패협력고위급대화
8월 4~6일	디지털·AI 장관회의
8월 9~10일	식량안보장관회의
8월 10~12일	여성경제회의
8월 26~27일	문화고위급대화
8월 27~28일	에너지장관회의
9월 15~16일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10월 19~22일	재무장관회의
10월 22~23일	구조개혁장관회의
10월 26~28일	제4차 APEC 기업인자문회의

자료 APEC 2025 준비기획단

올 하반기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5월 26일 각 부처 및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미 여러 회원국에서 각계 전문가와 요직 인사들이 방한해 경제·해양·노동·교육·통상 등 분야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공지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향후 분야별 장관회의 준비 현황 및 정상회의 제반 기본계획과 관련한 분야별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각 부처는 고위관리회의(SOM1, SOM2)와 해양관계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통, 수송, 의료, 문화행사 등 필요한 제반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항공 분야에선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기본 목표로 유관기관 및 각 공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에도 나선다. 정상회의 기간 중 각 공항과 역에서 모터케이드(요인 탑승 차량이 천천히 나아가는 행렬), 의전 차량, 셔틀을 활용해 매끄러운 행사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한 응급조치와 최고 수준의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할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문화행사, 홍보와 관련해선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 정상-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등 경제인 행사 역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들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 관련 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관련한 제반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광주 기자

중기 해외인증 획득 쉽게!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수출규제 관련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설명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초보기업 해외인증 획득 쉽도록 사전 컨설팅

먼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은 5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제공되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다.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 사전심사·진단을 신설한다. 초보기업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해외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사진 뉴시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은 5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도 가능)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성공조건부 사후지원)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억 원**

기업당 지원 한도	지원 건수	지원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 원 미만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억 원	최대 4건*	70%	60%	50%	규격인증별 한도 별도(건별 한도)

*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 원
(2025년 추경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통해 확인



자료 중소기업부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수출규제 관련 정보와 전문상담이 제공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된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나아가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역 기업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는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전문가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주요 해외인증 개요와 준비 절차를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부의 통상현안 관련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22일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의약품·농식

품·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부과 방침이 구체화되면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K-푸드 열풍으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에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등 고충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

김효정 기자

산불 피해 지역 녹조 중점관리 잔재물 하천 유입 방지막 설치

2025 녹조 중점관리 방안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7일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녹조는 하천에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가 유입되고 수온이 높아지면 주로 발생한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관리 체계 등 3개 부문에서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야적퇴비·가축분뇨 관리 강화

먼저 녹조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하천변이나 제방에 방치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야적퇴비의 상당수는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에는 낙동강 본류 등을 조사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실태를 파악했다. 이 중 4월 말까지 파악된 1500여 개의 야적퇴비에 대해 수거·이전·덮개 씌우기 등의 방식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된다. 가축분뇨를 처리해 연료를 생산하는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확대한다.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취급량과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하수미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를 줄이기 위해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개별 가구에서 처리 후 고농도로 방류하던 개인하수를 마을하수 저류시설에 이송·저장하고 공공시설로 이송·처리 후에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체 분뇨 수거가 어려웠던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화조 공공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된 2024년 8월 16일 충북 청주 대청호에서 녹조제거선이 수역 가장자리부터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계 오염원 집중 관리 • 가축분뇨 관리 강화 • 개인하수 관리 강화 • 유역별 중점관리지역 집중 관리 	녹조 제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염류 유입 최소화 • 녹조 신속 제거·제거 • 취·정수 관리 강화 	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조 발생 대응체계 가동 • 모니터링 및 예보 기능 강화 • 주요 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자료: 환경부

녹조 중점관리지역도 확대 지정된다.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임하·남강댐 권역을 녹조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확대 운영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홍수로 인한 쓰레기 등 영양염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댐 유입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부유물질을 수거한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청송 등 52개 지역에는 재나 그을음 등 산불 잔재물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녹조제거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활동을 지원해 지역 주민 주도 모델을 만든다. 이를 통해 영양염류 원인물질을 없애 녹조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녹조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녹조제거선은 2024년보다 7대 늘어난 35대가 배치된다. 녹조와 영양염류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수상 퇴치발도 2024년 안동댐과 섬진강댐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영주댐에도 확대 설치된다. 또 댐의 저층수를 저장해 필요할 때 분사하거나 전기방전을 통해 산화물질을 만들어 녹조를 분해하는 신기술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녹조가 발생했을 때 댐·하구둑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 조절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는 방식도 강화된다. 낙동강의 경우 일람표를 활용

해 댐·보 방류를 신속 결정하는 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녹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해 5월과 6월에 걸쳐 녹조 대응 준비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표준·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 녹조로 먹는물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AI 활용한 조류경보제 지점 확대

녹조 발생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유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유역별 현장대응반도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예보 기능도 강화한다. 여름철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 낙동강·금강 유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의 콧속 내 조류독소 조사도 추진된다.

인공지능(AI) 조류발생 예보가 적용되는 조류경보제 지점을 2024년 34개에서 올해 41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AI가 기상 상황을 분석해 해당 지점의 조류 발생 정도를 예측하면 예보 담당자가 AI의 예측치와 수치 모델링 결과를 종합해 일주일 후의 조류발생을 예측하는 구조다.

중장기적으로는 ‘제4차 비점오염원 종합대책(2026~2030)’을 연말에 수립한다. 국가의 가축분뇨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

김효정 기자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76.6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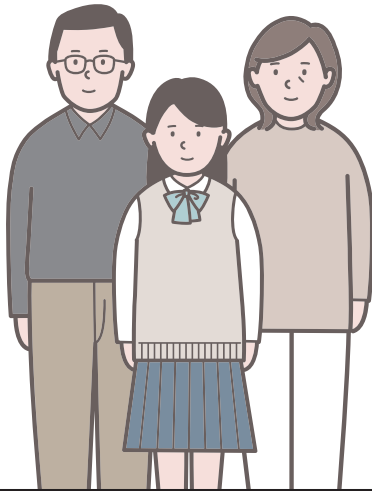
81

직전
조사
비교

2020

2022

2024년



다문화 학생 수

(단위: 명)

6만
780613만
722519만
3814직전
조사
비교

2014

2019

2024년

2025 청소년 통계

청소년 81% “부모와 관계 만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직업·외모 순

청소년 대다수는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과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월 27일 ‘2025 청소년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통계는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여가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작성한다. 조사 결과는 여가부 누리집(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청소년(13~24세)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77.6%였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81%로 형제·자매와의 관계(71.7%)보다 높았다.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인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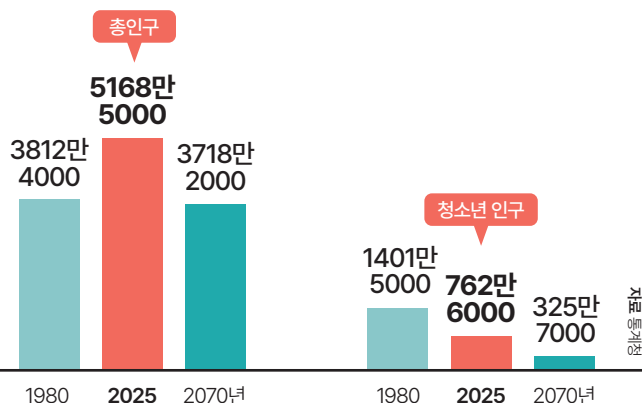
과 비교해 0.2%포인트(P) 높아졌지만 형제·자매 관계 만족 비율이 1.5%P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비율은 0.9%P 낮아졌다.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 78.6%, ‘성품이 좋은 사람’ 74.1%,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 74%, ‘자신에게 만족’ 비중이 68.9%였다. 영역별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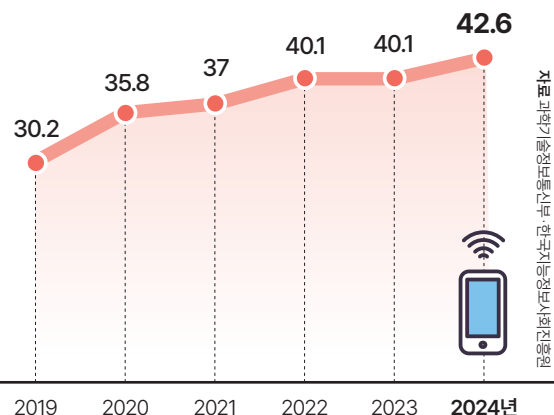
청소년 인구 4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

청소년의 92.2%는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7%)’, ‘직업(26.1%)’, ‘외모(12%)’ 순이었다.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동료(40.7%)’가 가장 많고 그다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단위: 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단위: %)



음은 '부모(34.2%)', '스스로 해결(17.1%)', '형제·자매(4.3%)' 등의 순이었다. 13~18세는 19~24세에 비해 부모에게 상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청소년 인구는 40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762만 6000명으로 1980년 1401만 5000명과 비교해 45.58% 감소했다. 총인구 가운데 비중도 36.76%에서 14.8%로 줄었다. 직전 해인 2024년(782만 4000명, 15.1%)과 비교해도 줄어들었다.

다문화 학생은 19만 3814명으로 전년의 18만 1178명과 비교해 7% 늘어났다. 전체 학생 514만 2000명 가운데 비중은 3.8%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2014년(6만 7806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의 37.3% 대비 5%p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43.4%, 중학생 41.3%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7.7%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7.9%)이 고등학생(27.5%)보다 소폭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32.5%)이 남학생(23.1%)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꼈다.

2023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2022년의 1901명 대비 34명 감소한 1867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9.9%(1118명), 여자가 40.1%(749명) 수준이었다. 주요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11.7명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대비 0.9명 늘어난 수치다.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24년 10대 청소년 42.6%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2023년 40.1%와 비교해 2.5%p 증가한 수준이다.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을 합산한 결과다. 남자(44.5%)가 여자(40.6%)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높았다. 고위험군 비중 또한 남자(6%)가 여자(4.4%)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1.7%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했으며 그다음 이 고등학생 41.4%, 초등학교 37.3% 순이었다.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2023년 78.5% 대비 1.5%p 증가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같은 기간 0.3시간 늘었다.

중·고등학생의 3.6%, 9.7%는 최근 30일 내 흡연·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0.6%p, 1.4%p 하락한 수치다. ●

고유선 기자

오늘전통창업 우수 청년기업 ‘더바른컴퍼니’ 전명준 대표

명절 음식? 어르신 간식? 안 굳는 ‘K-떡’으로 외국인 입맛까지 잡았다

한국인은 잘 모르는 K-푸드가 있다. 이름하여 ‘꿀떡 시리얼’. 꿀떡 위에 우유를 부어 시리얼처럼 먹는 음식이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가 개발한 이 신메뉴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고 ‘Ggul-tteok Cereal Mukbang(꿀떡 시리얼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모방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됐다. 외국인에겐 낯선 식감 때문에 외면 받던 과거와 비교하면 떡의 위상이 180도 달라진 것. 꿀떡 시리얼, 떡볶이 등을 필두로 우리나라 떡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떡 수출액은 9140만 달러(약 1326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떡의 ‘떡상(인기 급상승)’이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국내 떡 전문 브랜드 ‘더바른컴퍼니’는 창업 이듬해인 2023년 곧장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첫 진출국인 미국에선 한 달 만에 1.3톤 분량이 완판됐고 현재는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까지 시장을 넓혔다. 전명준 대표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수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처음 해외 수출을 결심하게 된 건 외국인 손님 덕분이었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 떡을 먹어보곤 너무 맛있다고 미국에도 팔면 안되

겠냐고 제안했죠. 그렇게 수출을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캐나다에서도 먼저 수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앞서 더바른컴퍼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 4기로 참여해 세계시장 진출의 포석을 마련했고 2024년 12월엔 우수기업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 대표의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떡을 ‘라이스케이크’가 아닌 ‘떡(TTEOK)’ 그 자체로 알리는 것.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목표를 이를 발판이 돼줬다.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더바른컴퍼니는 미국 내 한인마트 세 곳과 중국시장을 포함해 총 네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K-푸드의 인기가 떡과 같은 한식 디저트류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전 대표의 분석이다.

“요즘 미국에선 한인마트 소비자의 80% 이상이 교민이 아닌 미국 현지인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K-푸드의 인기가 높다는 거죠. 떡은 과거 일본의 모찌에 비해 인지도가 한참 떨어졌지만 이제 자체 경쟁력을 갖춘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선 총



더바른컴퍼니 전영준 대표가 굳지 않는 인절미, 딸기크림떡 등 직접 개발한 떡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더바른컴퍼니의 떡 제품들. (왼쪽부터)카스테라호박인절미, 저당 밥알찰쌀떡, 삼색꿀떡, 제공 더바른컴퍼니

8종의 떡을 선보였는데 바이어들 사이에서 모두 인기가 많았습니다.”

빵만 먹는 조카들 보며 '요거트떡' 개발

1998년생인 전 대표는 '젊은 사장님'이다. 그런 그가 전통음식인 떡을 사업화하게 된 데에는 29년째 떡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대형마트를 상대로 떡을 납품하던 공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직접 떡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수많은 떡 브랜드 사이에서 그가 차별화 전략으로 처음 내세운 것은 '패키지'였다. 책 모양의 떡 상자에 시인들과 협업해 제작한 '시 카드'를 넣어 배송했다. 3040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떡을 샀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뒤엔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착수했다. 카스테라 호박 인절미, 흑임자 인절미, 쭉 인절미 등 이른바 '인절미 3종'을 시작으로 크림찰쌀떡, 딸기크림떡, 요거트복숭아크림떡(출시 예정) 등 퓨전떡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출시한 메뉴만 17종에 달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전부리가 아닌 아이들도 즐겨 찾는 디저트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평소 떡이 아닌 다른 디저트를 맛보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사무실 한 편엔 메뉴 개발에 참고했다는 각종 과자와 빵이 잔뜩 쌓여 있었다.

“조카들을 보니 빵은 좋아하는데 떡은 잘 안 먹더라고요. 아무 때고 먹을 수 있는 빵과 달리 떡은 전통음식, 명절에만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강하고요. 젊은이들, 나아가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맛 열 가지를 조사해 어떻게 하면 떡에 접목할 수 있

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굳지 않는 떡’은 이곳만의 또 다른 차별 포인트다. 상온에 몇 시간만 놔두면 금세 딱딱해져버리는 특성은 떡의 큰 단점 중 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대표는 일본에서 들여온 진공교반 기계를 사용해 떡을 반죽한다. 1분에 100회가량 진공 상태에서 반죽을 치댄 뒤 급속냉동을 하면 굳지 않는 떡을 만들 수 있다. 인절미의 경우 상온에서 5~6일을 놔둬도 표면이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게 전 대표의 설명이다. 냉동 상태의 떡도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자연해동하면 쫄깃한 식감 그대로 맛볼 수 있다.

‘굳지 않는 떡’의 비밀은?

지금은 많이 알려진 방식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대부분 떡의 쫄깃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반죽에 소량의 밀가루를 첨가하는 방법을 썼다. 밀가루가 발효되면서 떡이 굳는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연구해 떡 제조사들에 권고하는 방식이지만 전 대표는 밀가루가 들어가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걸렸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독특한 기계가 눈에 띄었다.

“일본에선 전통과자를 만들 때 쫄깃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진공교반기계를 쓰더군요. ‘저거다’ 싶었죠. 기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최적의 반죽 속도와 물성을 구현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반죽 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지나치게 뻑뻑하거나 반대로 너무 물컹거리는 질감이 돼버리거든요. 게다가 떡 종류별로 재료가 다르니 반죽 방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하고요.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7개월 이상 걸렸죠.”

각종 아이디어로 무장한 퓨전떡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더바른컴퍼니는 매년

두 배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24년 14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성장세의 비결은 ‘건강한 떡’이다. 100% 국산 쌀만을 사용하고 유화제와 방부제는 일절 넣지 않는다. 앞서 아이들도 즐겨 먹는 디저트를 만들겠다는 기업 철학이 확장된 결과다.

최근 출시한 밥알찜쌀떡은 ‘저당’을 앞세웠다. 설탕을 넣지 않는 대신 천연감미료를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저혈당·저속도화 식단 등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은 살찌는 음식,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라는 편견을 뒤엎고자 했다. 전 대표는 “곤약을 활용한 ‘0칼로리 떡’ 등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 떡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쫄깃함 대신 부드러움으로 현지 입맛 공략

유통망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몇 해 전 홈쇼핑에 진출한 데 이어 이커머스까지 입점하면서 소비자가 언제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얼마 후면 편의점에서도 이곳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창업 4년 차 신생 기업이 발빠르게 그물망을 넓힐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입점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한 이커머스에 제안서만 100번은 넣은 것 같아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돼요.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죠.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대표의 목표는 떡의 한계를 계속 깨부수는 것이다. 특히 해외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떡을 만드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꿀떡,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떡의 식감을 낮설어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현지 마트에서 ‘아시안푸드’로 분류되는 떡을 독립적인 디저트로 격상시키는 것 역시 또 다른 비전이다.

“쫄깃하다는 개념이 없는 외국인들에겐 떡의 식감이 낯설 수 있어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는 게 중요하죠. 때문에 저희 떡은 쫄깃함보단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밥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이 작은 덩어리 안에 어떻게 이토록 다채로운 재료가 들어갈 수 있냐’면서 감탄하더군요. 떡이 이 같은 K-푸드의 돌풍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음식이 ‘K-떡’으로 전 세계 대표 디저트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 조윤 기자

청년들이 만든 우리 전통 상품을 전 세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동포 경제인의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마련한 행사다. 350여개 기업과 약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한 올해 행사에서 정부는 ‘2025 댕츠 코리아: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 청년창업기업’ 32개사의 상품 100여 종을 선보였다.

홍보관에는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군지 않는 떡을 개발해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는 ‘더바른컴퍼니’ ▲현대적인 도자기 제품으로 스타벅스·설화수 등 기업과 협업한 ‘무자기’ ▲화접도를 한복에 접목한 패션브랜드 ‘하플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 투자 설명회, 일대일 사업 상담, 특별 세일 등 현장 행사를 통해 해외 구매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통문화 상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행사 이후에도 구매자 상담과 수출 내역 관리 등을 통해 실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월에는 주LA한국문화원과 함께 전통문화 상품 전시와 등 후속 행사를 통해 북미권 시장에 대한 전통문화 기업의 판로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함께 키워요!

우리 아이도 1000권 읽기 도전해볼까?

전국 곳곳 어린이도서관과 '책 육아' 함께하세요

'책 육아'는 몇 년 전부터 인기를 얻은 육아 방식이다. 책과 친숙한 육아 환경을 만들어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책 육아에 공감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비싼 책 가격이 부담스럽다. 누구나 구입한다는 인기 전집은 30만~40만 원대가 기본이고 단행본 한 권을 구입하려고 해도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비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부모도 많다.

책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전국 곳곳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누리집(libsta.go.kr)에서 검색해보면 전국 어린이도서관은 모두 252곳이 있다. 서울에만 69곳이 있고 인천 21곳, 대전 26곳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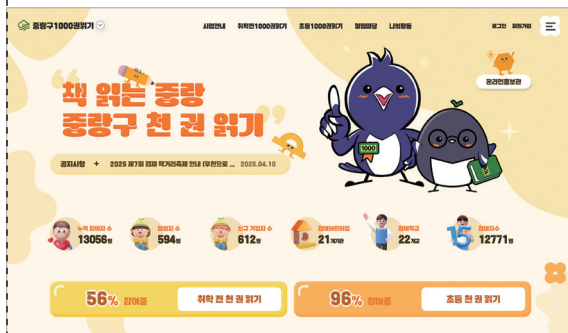
다.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책 육아를 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막상 도서관을 방문하면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 수만 권의 책 사이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책장 사이를 배회하게 된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어린이를 데리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이내 지루하다며 "밖으로 나가자"는 성화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진득하게 책을 읽게 할 수 있을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찾아 채혜민 관장에게 도움말을 들어봤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2022년 전국도서관 우수평가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매일 한 번씩 책 읽고 도장 찍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들어서면 올망졸망 모여 있는 수십 명의 어린이 캐리커처가 눈에 들어온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과 중랑구가 함께 진행하는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을 완수한 어린이들을 그려놓은 것이다. 취학 전 1000권 읽기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5~7세 미취학 아동이 매일 한 권씩 3년 동안 1000권을 읽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1000권이라는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하루 한 권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책에 관심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는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중랑구립도서관



전국 곳곳 어린이 도서관에서 부담 없이 책 육아를 시작하자. 사진은 서울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내부 모습. 사진 C영상미디어

을 가질 만한 나이인 5세부터 하루 한 권씩 3년간 책을 읽는다면 1000권이 된다. 1000권 읽기는 곧 ‘하루 한 권 읽기’와 같은 말인 셈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루 한 권씩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채 관장은 “우선 도서관을 익숙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일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 관장은 “처음에는 금방 나가자고 하던 아이들도 여러 번 방문하면 호기심에서라도 책 한두 권을 꺼

내 읽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채 관장은 “표지와 제목, 책의 앞뒷면에 있는 책 소개글 등을 보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책에 흥미를 갖게 하는 작업이자 책의 취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가 책을 고르는 것을 너무 어려워 할 경우에는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한다. 미리 숙지해둔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책을 탐색



1 어린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며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2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전경.
3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상장을 받을 수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할 수도 있다. 채 관장은 “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도 독서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100권 읽을 때마다 ‘독서여권’ 제공

도서관이 익숙한 공간이 돼 책을 한두 권 고를 수 있게 되면 이제 책을 읽어볼 차례다. 채 관장은 “책을 읽고 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면 좋다”고 말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독서여권’을 제공한다.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느끼는 성취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새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반복 독서를 권장하기 때문에 어제 읽었던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도 ‘한 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채 관장의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1000권 읽기를 ‘1000번 읽기’로 바꿀 수도 있다.

100권까지 읽으면 씨앗단계의 독서여권이 다

채워진다. 100권 읽기를 달성한 어린이에게는 배지가 주어지는데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300권, 500권, 700권 등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배지가 주어지고 새로운 여권이 발급된다. 1000권을 다 읽고 나면 더 큰 보상이 있다. 구청에서 1000권 읽기를 달성한 아이들을 모아 기념식을 열고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다. 채 관장은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년 1000권 책 읽기를 달성한 아이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 도서관에 장식해준다. 매일같이 도서관에 드나들면서 “여기 내 얼굴이 있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2024년 한 해에 1000권 읽기를 달성한 중랑구 어린이는 73명

에 달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그램에 도전해볼 수 있다. 지역마다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방문해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고 하루 한 번씩 책을 읽은 다음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 '중랑구 1000권 읽기' 누리집(jungnanglib.seoul.kr/jn1000)에서 '임시여권'을 다운로드받아 꾸며줄 수 있다. 꼭 여권 형식이 아니라도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면 된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독서통장, 독서기록장 등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책 읽고 놀면서 책에 대한 흥미 키우자

독서활동은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책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읽은 책의 내용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다양한 독후활동을 펼치면 좋다. 어린이도서관에는 이런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는 '만지작 꼼지락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한다. 전문가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미술활동, 몸놀이 등 독후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장서 수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도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가족이 모두 독서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가족독서 동아리도 운영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게 폐도서나 종이로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채 관장의 조언이다. "어려운 책을 읽지 않더라도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책을 찾아 읽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 육아를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뿐 아니라 부모들부터 각 지역의 도서관을 가까이해보자. ●

김효정 기자

무슨 책이 좋을까?

도서관 누리집 확인하세요!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을지 고민된다면 여러 공공·민간기관의 누리집을 이용해보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신간도서 중에서 발달단계를 고려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연령별로 대상을 구분해 누리집에 격월로 목록을 공개한다. 도서관 누리집(nlc.go.kr)에서 '자료검색-사서추천도서'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childlib.seoul.go.kr)에서도 매월 추천도서가 공개된다. 특히 '학년별 권장도서' 탭에서는 매년 여름·겨울방학마다 제공되는 추천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추천할 만한 책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힐지 고민된다면 참고할 만하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중랑구1000권읽기 누리집에는 아이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 목록이 공개돼 있다.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공감대를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책 읽는 아이로!

독서로에서 시작하세요

어떻게 책을 읽을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독후활동을 해야 할지 궁금한 학생과 학부모라면 독서로(read365.edunet.net)의 도움을 받자.

독서로는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독서로를 통해서도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다. 마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다. 독서토론방에서 토론 주제를 올리거나 독후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도서정보를 찾아볼 때도 도움이 된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어 학교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해보고 싶다면 독서로에 접속하면 된다. 내 취향 도서 찾기, 추천 도서 등의 코너에서는 읽을 만한 책을 골라보면 좋다.

늘어나는 무인 가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없어서
헤맨 적 있나요?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어떻게 커피머신을 작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은요?
최근에는 어딜 가나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 등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가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인 장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도난 사건 등 문제도 많고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도 많아요. 결제 오류가
생기거나 기계가 고장 나도 대응이 늦어
점주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죠.
무인 가게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MZ세대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무인 가게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



참가자 선바위(32세, 프리랜서)
깜깜(28세, 회사원)
므잉(30세, 회사원)
엘리스(28세, 회사원)
설레임(24세, 회사원)
카드값춰체리(35세, 회사원)

Q 무인 가게를 이용할 때 불편하거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카드값춰체리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종종 이용하는데 판매 제품도 다양하고
24시간 운영해서 편리해요. 다만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건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건데 상품 가격이 다른 마트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혜택을 받는 건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므잉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얼어서 모양이 변질됐더라고요. 환불하고 싶었는데
무인이라 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소액이라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무인 세탁소도 종종 이용하는데 타인의 세탁물을
직접 꺼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세탁물에
누가 손댔을까봐 불안했던 적도 있고요.
매장 관리자만 있었어도 훨씬 편했겠죠?"



지미이

깜깜

무인 라면 가게나 카페에 갔을 때
매장 정리가 안돼 있어서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적이 있어요.
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려면
카드 인식을 해야 하는데 오류가 계속
발생해 들어가기 전부터 짜증이 났죠.
아직 무인 매장에서 환불을 해본 적은 없는데
환불 과정도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선바위

최근 무인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기프트콘과 통신사 할인 적용이
잘 안돼서 결제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더니
도난 관련 경고가 너무 많이
불어 있어서 저까지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Q 무인 가게의 도난·분쟁 이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깜깜

“도둑이 문제인데 가끔 가게 주인 탓을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므잉

“점주가 무인화의 장점을 누리는 만큼 그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실수로 냉동고를 안 닫았다고 피해액을 청구하거나 결제 오류 때문에 실수한 손님을 도둑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붙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책임을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선바위

훔쳐가는 사람이 제일 잘못이죠. 하지만 도둑 잡겠다고 경찰을 부르면 인건비 절감을 사회적 비용으로 메우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주들도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카드 인식 출입문 등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업주가 더 잘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앨리스, 설레임

직원이 지키고 있는 가게도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무인 가게는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매번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요. 무인 가게가 늘어나면서 신뢰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Q 무인 가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선바위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단, 소비자를 위한 AS나 환불정책 같은 보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해외처럼 카트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자동으로 상품이 스캔되고 결제되는 ‘스마트카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어요.

앨리스

“무인 가게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N잡러가 많은 시대, 무인 가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각자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이 안된 물건을 들고 나가면 감지하는 도난방지택 도입 등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해보여요.”

깜깜

“무인 가게 절도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강화해야 해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도 중요하고요. 물론 가게 주인들도 개인 인증 출입 시스템 등에 더 투자해야겠죠. 편리한 만큼 예방과 교육 모두 신경 써야 해요.”

설레임

완전 무인보다는 일정 시간에 단기 근로자가 관리해주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어떨까요? 도난이나 미성년자 주류 구매 같은 사회문제들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보안 강화 지원금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지원금을 단기 근로자 고용이나 보안 시스템 도입에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인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배움터가 어르신 일터로 27년간 버려진 폐교 명물 카페로 변신

저출생 시대. 갈수록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잦아든다.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도 사라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누적 폐교는 3955곳. 폐교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쓰임새를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가 367곳에 이른다(매각 2609곳, 활용 979곳). 쓸모를 다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화두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잡은 한 카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나섰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카페 가재미38'. 도로명주소 가재미길38을 그대로 간판에 가져다 쓴 이곳은 1998년 문을 닫은 일광초등학교(구 일광분교)를 리모델링해 올해 3월 개소했다. 27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폐허의 땅이 커피향 나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홍물' 폐교 되살릴 아이디어 낸 서산시니어클럽

카페 가재미38은 이른바 '시니어 카페'다. 폐교와 카페와 노인, 다소 낯선 이들의 조합은 서산시니어클럽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 예산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학교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던 서산시니어클럽은 오랫동안 텅 빈 채 남아 있던 학교의 나머지 건물 한 동을 시니어 카페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방치된 폐교를 카페로 탈바꿈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쉼터이자 일터를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지어진 학교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서산시니어클럽 회원이 1600명 이상 급증하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그때 우리 사무실 맞은편 폐교 건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앞서 서산시가 매입한 폐교 건물 한 동을 서산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 동은 계속 방치된 채로 있었거든요. 그곳을 카페로만 들여보면 어떨까 고민하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자 나섰죠.” 공모사업을 주도한 서산시니어클럽 이효정 관장의 설명이다.

과거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화제가 됐다. 평일에도 한 시간 넘는 거리에서 찾아오는



'카페 가재미38'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커피 제조부터 매장 운영까지 모두 직접 맡고 있다. 사진 서산시니어클럽



충남 서산시 성연면에 위치한 '카페 가재미38'은 1998년 폐교한 일광초등학교를 카페로 탈바꿈해 올해 3월 문을 열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손님들이 있을 정도다. 서울에선 차로 약 두 시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논밭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면 화사한 색감의 키 낮은 건물이 한눈에 시선을 잡아끈다. 총면적 129.6㎡(약 40평), 분홍색과 민트색으로 치장한 한 층짜리 카페 외관은 소담한 옛 시골마을의 학교 모습 그대로다. 그 주위로 키 큰 나무들과 색색으로 만개한 꽃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풍금소리가 들려올 듯한 기분마저 든다. 방문객에게 카페 건물 앞 널따란 주차장도 만족스러운데 과거 학교 운동장으로 쓰였던 공간이라고 했다.

칠판·복도·신발장... 학창시절로 추억여행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는 '홍물'스럽기까지 했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서산시니어클럽은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금 1억 원에 자체 예산까지 들여 수도와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전기설비 공사도 다시 했다. 직원들은 물론 시니어클럽 회원들까지 팔을 걷어붙여 건물에 색을 입히고 나무와 꽃을 직접 심

었다. 덕분에 이곳을 찾은 손님은 카페 뒷마당 가득 그림처럼 펼쳐진 꽃밭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이 관장은 "시니어클럽 회원들에게 나무와 꽃을 기증받아 심기도 했다. 덕분에 카페는 아름다워지고 회원들은 꽃나무를 키우며 카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이라며 "내년부터 일반 손님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내부로 들어오면 과거 학교의 흔적이 더욱 눈에 띈다. 교실 두 칸의 벽을 허물어 조성한 카페는 한쪽 벽면 전체가 그림으로 장식돼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대형 칠판을 캔버스로 활용했다. 짙은 청록색 칠판은 요즘 학교에선 좀체 볼 수 없는 추억의 물건이다. 서산시니어클럽 직원들은 리모델링하며 칠판을 없애는 대신 이를 도화지 삼아 이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밖에 카페 테이블 아래로 슬쩍 보이는 신발장, 일자형의 긴 복도, 걸을 때마다 "빠걱" 소리를 내는 나뭇바닥도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 특히 주민들이 그린 그림이 걸린 카페 복도를 걷다 보면



교실 두 칸을 합쳐 리모델링한 카페의 내부 모습. 한쪽 벽면은 칠판을 캔버스로 활용해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던 학교의 풍경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진다. 이 관장은 “과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찾아와 카페에서 동창회를 열기도 한다. 나 중엔 운동장을 대여해 동창 체육대회 등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시니어 바리스타 13명 “내 일 갖는 게 노년의 활력”

카페 운영은 전적으로 서산시니어클럽 회원들이 맡고 있다. 총 13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음료 제조부터 고객 응대, 매장 관리까지 모두 직접 한다. 카페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도 모두 시니어 직원들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카페의 사장이다. 나 혼자가 아닌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메뉴는 아메리카노, 라테, 허브티, 미숫가루 등 일반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격은 2500~5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영어 없이 한글로만 쓰인 메뉴판,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주시면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도 이곳 시니어 카페에서만 볼 수 있다.

시니어 바리스타는 60~75세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다. 기



복도와 신발장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카페 내부(위)와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직접 가꾼 꽃밭도 과거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정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장기간 방치된 폐교 활용 쉬워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전국 현장에 배포했다.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 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설명한 안내서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는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대신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두 법령을 각각 어떤 경우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적용의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령 폐교활용법상 수익계약 대상이 아니라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익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교육감이 폐교 활용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행정절차, 관련 법규, 소요기간 단축 방안 등도 단계별로 제시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체 고위직 출신부터 주부까지 배경도 다양하다. 근무시간은 주 30~40시간을 목표로 13명이 세 시간씩 교대로 한다. 아침 9~10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한다. 근무 원칙이 있다면 오직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 수익이나 효율 같은 구호는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카페 매니저인 이시영 씨는 70대에 시작한 커피 공부에 푹 빠져 있다고 했다. 카페가 개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공부를 시작해 1급 바리스타자격증까지 땀다. 이 씨는 "문 닫은 학교를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가 좋아 시니어 바리스타에 지원했다"면서 "처음엔 커피머신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라테아트 같은 고난도 기술도 문제없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까지 직접 교육할 만큼 실력이 늘었다"며 뿌듯해했다. 또 다른 시니어 바리스타 문윤희 씨는 4년 전 은행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도전에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 씨는 "은퇴 후엔 여행이나 다니며 쉬려 했지만 막상 내 역할이 없어지니 무기력했다. 다시 일을 하니 삶에 활기가 돈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좋다. 월급은 손주들 용돈으로 준다"며 미소지었다. 이 관장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경제적 독

립을 이루고 고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드니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저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연면은 과거 인구가 줄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몇 년 사이 테크노밸리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주인구가 2만여 명까지 늘었다. 직원들은 카페를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인근 고남저수지에 설치 중인 나무데크 길을 카페까지 연결하고, 카페 앞 운동장엔 잔디를 깔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폐교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관장의 생각이다.

"폐교는 쓸모가 많아요. 시니어 카페 외에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노치원(노인 유치원)'으로 꾸밀 수도 있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카페 가재미38처럼 폐교를 지역발전의 원료로 삼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

조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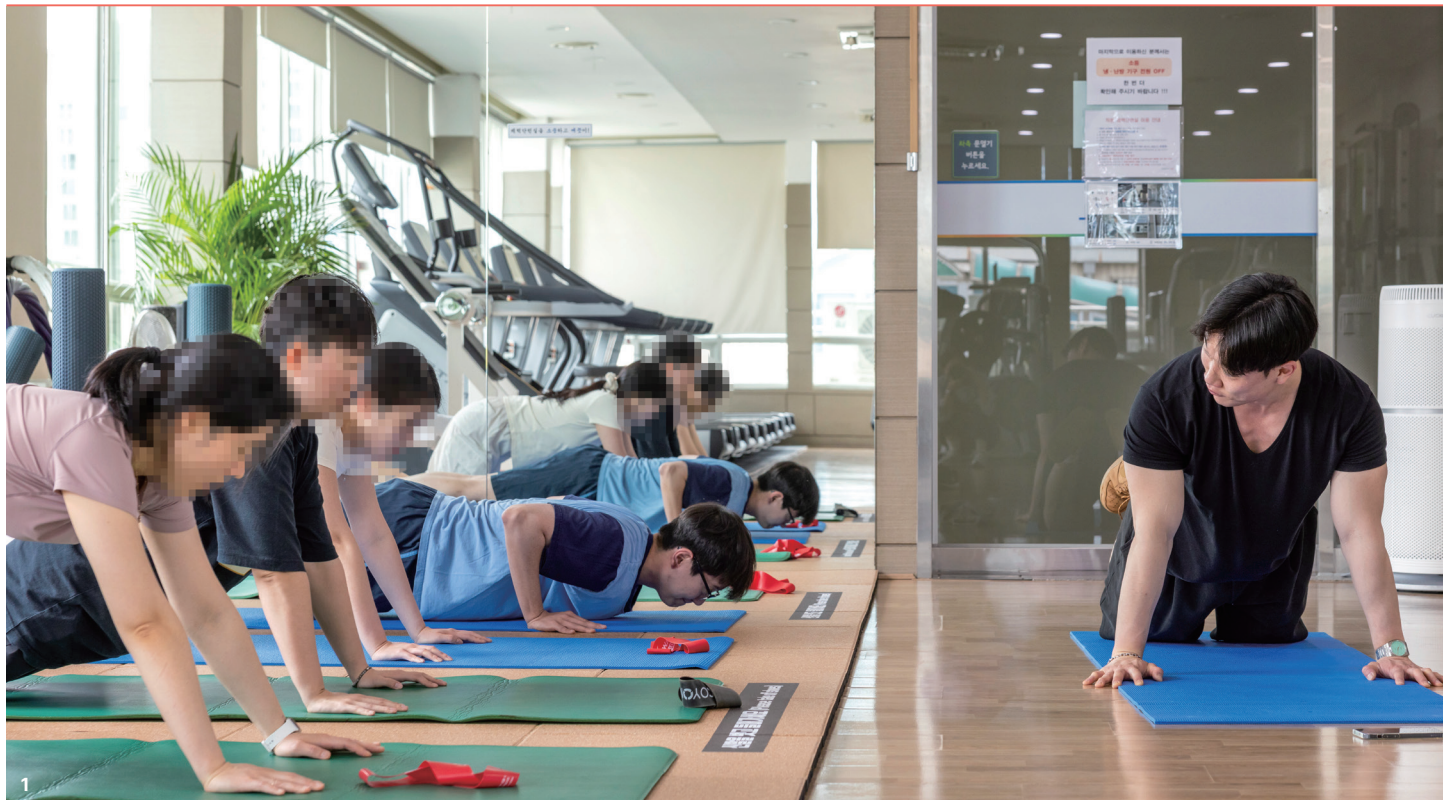
청년기자의 '청년카페' 체험기

취업 상담부터 체력 단련까지 상담사 위로에 눈물이 왈칵

집에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스터디 카페라도 가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취업준비생(취준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어딜 가나 가시방석인 취준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 있다. 이곳에 가면 넓은 공간도, 맛있는 커피도 무료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카페'다.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 공간으로 전국 각지에서 88곳이 운영 중이다.

청년카페는 만 15~34세(지자체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또래들과의 소통, 각종 청년 지원사업 연계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단 청년카페를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받고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정이 비슷한 청년들과 소

- 1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P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팸플릿들이 비치돼 있다.
- 3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내부 중앙에 위치한 공간에선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통할 수 있는 모임도 여럿이다. 가까운 청년카페의 위치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카페(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찾아가 상담과 PT(운동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해 봤다.

1대1 상담으로 구직 문 열어줍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이하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빼곡히 놓인 30여 종류의 팸플릿이 눈에 띄었다. 모두 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뭘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 싶었을 때 이웅재 청년성장프로젝트 매니저가 다가왔다. 이 매니저는 “처음 방문하면 가장 먼저 1대 1 밀착 초기상담을 받는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이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취준생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초기 상담을 받았다.

상담실 책상 한쪽에 갑 티슈가 놓여 있었다. 그 이유는 곧 알 수 있었다. 상담사인 박채운 매니저가 인사와 함께 질문지 한 장을 건넸다. 현재 신분부터 자격증 유무, 구직 기간, 교류하는 사람들, 경제적 수입원 등 28개의 질문이 있었다. 3년 전 취업을 하기 전 상황을 되돌리며 질문지에 응답했다.

박 매니저는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던지고 상담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에서 자주 떨어졌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더니 박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면접은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항상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가

‘청년카페’는

2024년 63곳에서 올해 88곳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쉬는 청년’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4만 6000여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들 중 94.1%가 지인에게 청년카페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63곳이었던 청년카페 수는 올 들어 88곳으로 확대됐다.

전국 각지의 청년카페마다 자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용 시설(인프라), 초기상담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 등을 지원한다.

전국 청년카페는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1곳 ▲대전 3곳 ▲세종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19곳 ▲경북 7곳 ▲대구 8곳 ▲경남 6곳 ▲부산 7곳 ▲울산 1곳 ▲광주 3곳 ▲전남 7곳 ▲전북 5곳 ▲제주 1곳에 위치해 있다.

각 청년카페에 따라 면접을 위해 퍼스널컬러(어울리는 색깔)를 찾아주기도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금융교육과 각종 스테디, 비즈니스 매너 지도,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 지원, 지역친구 만들기 등을 돕기도 한다. 청년카페를 방문한 청년들은 “우연히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다”, “찾은 이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한 순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용기와 시간을 조금만 내어 찾아오시면 일주일 동안 쓸 힘을 얻어갈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게 채용시장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만 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권고사직이 이뤄질 정도로 이 분야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본인의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기업들의 현황과 같은 정보를 얻을 공간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힘들었죠. 용기와 시간을 조금만 내어 찾아오면 일주일 동안 쓸 힘을 얻어갈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말 못했던 고층에 티슈 두 통 비우기도

박 매니저는 “39세 남성이 찾아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며 “상담사 앞에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상담사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남 모르는 고층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갑 티슈) 두 통을 쓰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 시간은 보통 한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북받친 감정을 쏟아내느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박 매니저는 티슈를 건네주고 조용히 기다려준다고 한다. 마주 앉은 이가 못다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고 일어설 때까지.

상담이 끝나면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준다. 기자가 추천받은 프로그램은 ‘커리어 업’이었다. 현직자 멘토링(조언), 서류·면접 특강,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컨설팅, 현장 방문 실무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6월 3일부터 24일까지 1회 차, 8월 5일부터 28일까지 2회 차,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3회 차에 걸쳐 수강 일정이 잡혀 있었다. 가능

한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받았다. ‘왜 이런 걸 진즉 찾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실을 나와 센터 공간을 둘러봤다. 외국인도 간혹 눈에 띄었고 쿠션에 누워 낮잠을 자는 이도 있었다.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트북을 보거나 책을 쌓아두고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도 보였다.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28세 여성은 “직장을 다니다 최근 퇴사하고 건축 분야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다”며 “초기 상담을 받고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천받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친구 약속도 이곳에서 하고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도 여기서 만나요”

짧지 않은 취업 준비 기간을 버티려면 체력도 중요하다. 이곳에선 PT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PT는 인근 영등포구청 보건소 6층 체력단련실 공간을 이용한다. 4명의 청년 틈에 끼어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해봤다.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팔 굽혀펴기와 스쿼트(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했다. 민망함도 잠깐,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땀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PT를 받으려면 직장인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들지만 이곳에선 무료다.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 단련을 하고 나니 잡념이 싹 달아났다. 정신이 바짝 들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용재 매니저는 “매월 새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고용24’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프로그램 가운데엔 고립·은둔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것도 많다. 국무조정실이 2022년 7월부터 8

월까지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출산·장애 등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은 2.4%에 달했다. 청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4만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센터는 이들을 위해 ▲스트레스 찾기 ▲실패 이력서 작성해보기 ▲비슷한 동료와 친해지며 경험담 공유하기 ▲감정그림 그리기 ▲도에 ▲캠핑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216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재휘 센터장은 고립·은둔청년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한 어머니가 3년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8년 만에 집에서 나온 친구를 상담하기도 했어요. 고립·은둔청년 10~15명 정도가 매주 모여요. 그간 70~80명이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이들 중 현재까지도 연락되고 있는 청년이 30명이 넘어요.”

8년째 은둔한 청년은 이곳 프로그램을 거쳐 코

트라(KOTRA)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 손을 잡고 온 청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고립을 벗어났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고립·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말이다.

“커피 마시러 오세요!”

김 센터장은 방문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다보면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센터가 했으면 좋겠어요. 위축된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힘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오셔도 돼요. 일단 오세요!” ●

김광주 기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이용하는 법



상담사 박채운 매니저가 1대1 초기 상담을 하고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두 시 티톡’에서 또래소통하고 ‘청년 행거’로 취미생활 챙기고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청년카페)는 6월 한 달 동안 ▲상담 ▲정보통신(IT)직군 현직자의 직무 멘토링(지도) ▲업무환경 현장 탐방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지도 ▲상사·동료와의 소통 컨설팅 ▲기안서·기획서 작성에 대한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주거, 생활지원, 마음건강, 커뮤니티(또래소통)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다른 청년들과 모여 올해의 유행을 주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두 시 티톡(tea talk)’을 운영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이 모여 소통하는 ‘은고치(은둔 고립 치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있다. 비슷한 관심과 취향을 가진 청년들이 요리, 꽃꽂이, 스피치(웅변), 운동,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청년 행거’ 프로그램도 있다. 이 밖에도 취업 특강, 액셀 등 자격증 과정, 반찬 나눔, 각종 동아리, 1인가구 네트워크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2024년 기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의 누적 이용자 수는 6만 6570명이다. 참여자 연령대는 25~29세가 41%로 가장 많고 30~34세는 36%를 차지한다. 35~39세도 14%, 19~24세는 9%로 집계됐다.

6월 5~30일 국악주간

첫 국악의 날 맞아 전국이 ‘흥’으로 들썩!

‘제1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조명하고 함께 국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신설된 첫 번째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30일까지를 ‘국악주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6월 5일 국악의 날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민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세종 29년 6월 5일)과 같은 날로 지정됐다. 국악주간 공연은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자 했던 세종의 뜻에 따라 무료로 진행된다.

궁중연례악부터 국악 밴드까지

국악주간 첫날에는 서울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흥례문 안마당, 근정전에서 국악 공연과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흥례문 야외광장에서는 ‘제1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진행돼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국악의 날을 선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악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여민락상’을 마련하고 국악진흥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기념식과 시상식은 국악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6월 7~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세종조 회례연: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 기념행사가 열린다. 회례연이란 설이나 동짓날 문무백관이 모여 임금에게 배례한 후 베풀던 잔치다. 이번 행사에서는 1433년 세종 회례연이 열린 경복궁 근정전에서 모든 궁중 악무를 아우르는 궁중연례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세종실록을 바탕으로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대로 이를 재현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에서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여민락 대축제’가 벌어진다. 6개 지역의 농악 길놀이와 특별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즐기기에 좋다. 진도 셋김굿, 청소년 창작국악, 국악 밴드 공연 등도 이어진다. 놀이마당에서는 국악 체험 부스도 마련돼 국악을 한층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국악과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특별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일간(6월 10~12일) 시리즈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김덕수, 박태규, 이호연 등 100인의 국악명



4월 9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정기공연 '다시 그리는 노래' 시연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6월 5일 국악의 날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민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세종 29년 6월 5일)과 같은 날로 지정했다. 국악주간 공연은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하고자 했던 세종의 뜻에 따라 무료로 진행된다. ♪

인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악주간 전국 각지에서는 국립국악원과 문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과 교육·체험행사, 학술대회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 맞이하는 국악의 날이 국악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통해 국악계는 물론 국악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국악의 보존과 진흥, 저변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악주간 전국 주요 행사는 공식 누리집(academy.gugak.go.kr/gugak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윤 기자

국악주간, 꼭 챙겨보세요!



제1회 국악의 날 기념식

일시 6월 5일(목) 오후 5시

장소 경복궁 흥례문 광장 문의 (02)580-3266

제1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국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악인 잔치 한마당.



흥으로 잇는 세상 '연희판'

일시 6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문의 (02)580-3300

팔도의 연희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난장으로 구성된 공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등 출연.



세종조 회례연: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

일시 6월 7~8일(토~일) 오후 4시

장소 경복궁 근정전 문의 (02)580-3038

1433년 회례연이 열렸던 경복궁 근정전에서 모든 궁중 악무를 아우르는 궁중연례악 공연.



2025 국악 WEEK x 관현악 '시대를 울린다'

일시 6월 10~12일(화~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국악원 우연당 문의 (02)580-3300

3일간 펼쳐지는 3개 국악관현악단의 시리즈 무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등 출연.

국악주간(6월 5~30일) 전국 주요 행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행사명	일시	장소
전남 국악의 날 제정 기념 국립남도국악원 기획 공연	6월 5일(목)	오후 3시 진도무형유산전수관 야외무대
전북 제1회 국악의 날 기념 공연	6월 5일(목)	오후 7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경북 2025 영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전공 전통음악 연주회	6월 5일(목)	오후 6시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부산 제1회 국악의 날, 국악주간 기념 공연	6월 5~7일(목~토)	오후 5시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예지당
전북 국악 명상 치유 프로그램 '숨 쉬는 정원'	6월 5, 12일(목)	오전 7시 광한루원 내 광한루
서울 전시 '방방곡곡 국악사전, 흥타령 악수터' 외	6월 6~8일(금~일)	종일 광화문 놀이마당 부스
부산 국악 명상 치유 프로그램 '춤처럼 흐르는 심, 국악생활체조 정중등'	6월 6~7일(금~토), 13~14일(금~토)	오후 5시 부산시민공원, 북항친수공원
세종 2025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디 아트스팟 시리즈' 국립세종수목원	6월 7~8일(토~일)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서울 즉흥-국악마스터클래스	6월 9~14일(토)	종일 국립국악원 세미나실 외
경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6월 13~14일(금~토)	오후 7시 경기국악원 마당
경기 별빛물빛콘서트 in 양평 '안녕과 복원을 부르는: 제'	6월 14일(토)	오후 3시 씨어터양평
전남 국악 명상 치유 프로그램 '비우고 채우다'	6월 14일(토)	오후 4시 국립남도국악원 야외마당
전북 정읍시립국악단 정기공연 '정순왕후'	6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
경기 2025 이자람 판소리 갈라 시리즈 '바탕'	6월 21일(토)	오후 4시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경남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90회 정기연주회	6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단 토요일상설 공연 '토요우리소리'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영동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 공연장

충남 아산시 현충사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가 몰랐던 충무공을 만날 시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학창시절 수학여행지로만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1545~1598) 탄신 480주년인 올해, 그것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충사를 찾을 이유는 너무나 많다.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이 스무 살 무렵 상주 방씨와 혼인하며 이주한 곳이다. 여진족 토벌에 나서 승리를 거두고도 명 받은 '백의중군'을 끝낸 후 그는 이곳에서 마음을 추슬렀다.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현충사 일대에는 그가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한 활터, 살림을 꾸린 고택 등 인간 이순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다.

마침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현충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5월 말 방화산 자락 아래 푸름이 가득한 현충사를 찾았다. KTX 천안아산역에서 택시로는 15분가량 걸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 빠꾸기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평일 오전 시간이라 단체 견학을 온 유치원생들을 제외하면 방문객이 많지는 않다.

장대한 높이를 자랑하는 소나무들을 감상하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경주 천마총처럼 푸른 잔디가 식재된 둔덕 모양의 지붕을 인 형태다. 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전시관은 충무공이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운 활약상은 물론 골목대장 시절, 백의중군 당시의 이야기, 난중일기를 통해 들여다본 인간적인 면모 등 충무공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터치스크린, 미디어아트 등 오감을 이용해 충무공을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어린이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충남 아산시 현충사 가장 위쪽에 본전이 위치해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이순신 장군이 혼인 후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와 살았던 고택. 사진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생생한 미디어아트로 마치 배에 탄 듯

전시관에는 난중일기, 천자총통, 장검, 선무공신교서,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 등이 있다. 이 중 국보인 장검 두 자루는 이순신이 전장에서 실제 사용한 칼은 아니고 항상 곁에 두고 마음을 가다듬는 용도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길이가 각 2m에 달할 정도로 커 위용을 자랑한다. 보물인 선무공신교서는 1604년 10월 이순신을 선무 1등 공신에 올리면서 선조가 내린 교서다. 선조가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서 물리나게 하고 별을 준 게 잘못이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인 임진왜란 전투를 다룬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사망으로 수많은 배가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비장함을 더한다. 전시관 한쪽에선 폭포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폭포 아래쪽에 한산도대첩과 명량대첩, 노량대첩 등의 글자가 떠다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전투 화면이 펼쳐진다.

전시실에서 실감영상실로 가는 길목에선 가로 7m, 세로 3.33m 크기의 ‘한산전양해전도(閑山前洋海戰圖)’를 만날 수 있다. 이 그림은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압도적인 규모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기념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이다.

전시관 뒤편으로는 어린이 활쏘기 체험장이 있다. 나무관으로 만든 과녁 3개를 화살로 맞히는 놀이형 체험 시설이다. 활쏘기 체험은 주말 및 공휴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7~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활쏘기 체험장에는 지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념관을 나와 본전(本殿)으로 가기 위해선 충무문을 거



(왼쪽) 현충사 본전에서 보면 배방산·설화산 자락과 아산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오른쪽)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내부 전시실. 사진 고유선 기자

쳐야 한다. 충무문에 들어서니 넓고 곧은길이 죽 뻗어 있다. 길 끝에 소나무와인 아름다리 '반송'이 어서 오라 손짓한다. 잘 정돈된 잔디와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방문객을 호위한다.

구 현충사부터 현재의 현충사까지

반송으로 향하는 길 왼편에는 구 현충사가 있다.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으로 현재의 현충사가 세워지기 전 현충사다. 원래 현충사는 1706년 아산 유생들의 건의로 충무교육원 부근에 세워졌다. 숙종이 이듬해 현충사 현판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1868년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렸고 그 자리에는 유허비(遺墟碑, 선인들의 자취가 남은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가 세워졌다. 1931년에는 종가의 형편이 어려워져 이순신 묘소와 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토지인 위토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때 민족적 모금 운동이 일어나 그 빚을 갚고 이듬해인 1932년에 세워진 곳이 구 현충사다.

현충사는 반송에서 위쪽으로 난 길을 따라 세워진 홍살문과 충의문을 차례로 거쳐야 볼 수 있다. 방화산 정상을 등에 업은 현충사의 앞마당은 넓적하면서도 잘 정돈돼 있다. 향로에 피운 향냄새와 정면으로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이곳이 사당임을 실감케 한다. 향로 뒤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 또는 재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다. 사당 안쪽 벽면으로는 이순신 장군 일대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영정을 등에 지고 아래쪽을 바라보니 탁 트인 풍경이 장관이다. 층층이 쌓인 계단 끝에 오른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멀찍이 보이는 배방산·설화산 자락과 시내 풍경이 정겹다.

사당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순신 장군이 지낸 고택을 만날 수 있다. 서울 태생인 이순신 장군은 혼인 후 외가와 처가가 있는 아산으로 이주했다. 고택은 1960년대까지 후손들이 대대로 살며 400여 년간 고치고 늘렸다.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대여섯 개 있는 구조다. 집 뒤편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집안 내 사당이 있다. 매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인 음력 11월 19일에 제사를 지낸다.

이순신 장군이 마신 물 맛은?

집 바로 옆에는 충무정이라는 우물과 활터가 있다. 충무정은 이순신 장군과 그의 가족, 후손들이 실제 사용한 곳이다. 현재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바가지가 있다. 활터는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한 자리다. 이곳의 은행나무들은 수령이 약 570년으로 각각 높이가 22m, 20m에 이른다.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활터 옆으로는 중학생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쏘기 체험장이 있다. 체험장은 4~10월 사이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어린이 활쏘기 체험장과 같다. 날이 매우 더운 7~8월 및 우천·폭염·강풍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체험장 한쪽에는 활과 화살, 시위를 잡는 법과 함께 활쏘기 자세를 사진과 함께 설

아산에 왔다면 놓칠 수 없는 재미들

곡교천 따라 은행나무길 산책

현충사를 찾았다면 그 앞을 흐르는 곡교천을 따라 조성된 은행나무길을 산책할 것을 추천한다. 현충사 성역화 사업에 맞춰 조성된 이 길은 1973년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으며 조성됐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물결이 황금터널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길 주변으로 샛노란 유채꽃을 비롯해 수국, 코스모스 등으로 봄, 여름, 가을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 찾는 이가 많다.

타임머신 타고 외암민속마을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외암민속마을도 아산의 빠뜨릴 수 없는 관광명소다. 500여 년 전 형성된 이 마을은 현재까지 옛 가옥을 보존해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마을 내 가옥은 반가의 고택부터 초가집까지 다양하다.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물길 따라 걷다 보면 소란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마을에선 감자 및 고구마 수확, 강정 만들기, 고추장 빚기 등의 체험도 제공하니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좋다.

외암민속마을은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장승제를 지내고 10월에는 짚풀문화제, 11월에는 동지 행사를 개최한다. 마을 앞 조선시대 장터인 저잣거리에서 선 먹거리 및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장터에 빠질 수 없는 국밥을 비롯해 파전, 김치전 등 각종 전과 국수, 묵우침, 막걸리 등을 판매한다. 민박도 운영해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며 옛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도 있다. 민박 예약은 외암민속마을 누리집(oeam.co.kr)에서 할 수 있다. 외암민속마을은 매일 오전 9시 문을 열어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일부 시설이 휴관한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 1000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아산시에서 평택시로 넘어가는 바닷가 인근에는 천주교 순교성지 공세리



(왼쪽) 곡교천 은행나무길. (오른쪽) 공세리성당. 사진 아산시청

성당이 있다. 지어진 지 135년 된 유서 깊은 성당이다. 아름다운 외관과 분위기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이곳을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성당 정원에는 수령이 350년 이상인 보호수가 네 그루 있다.

공세리성당은 상처와 종기에 특효인 '고약'을 처음 만들어 보급한 곳이기도 하다. 1895년 이곳에 부임한 에밀 드비즈 신부가 프랑스에서 익힌 방법으로 원료를 구해 고약을 만든 뒤 피부질환으로 고생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 비법을 당시 신부를 도운 이명래가 전수받았고 여기에 민간요법을 더해 만든 것이 현재의 '이명래 고약'이다.

여행 피로 씻어줄 온양온천

관광을 마쳤다면 피로를 풀 차례. 온양온천역 주변으로 크고 작은 온천이 즐비하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제·통일신라시대를 거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세종대왕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행차한 후 여러 임금이 이곳에 휴양과 치료를 위해 행궁(行宮)을 짓고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수온은 58°C 내외이며 약알칼리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수질이 좋아 예로부터 휴양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았다.

명하는 안내판이 있다. 다만 과녁과의 거리가 3~4m 정도에 불과한 어린이 활쏘기 체험장과 달리 가장 가까운 과녁도 20~30m 밖에 있어 맞히기 쉽지 않다. 가장 먼 과녁은 145m 떨어진 곳에 있다. 이순신 장군은 200m 거리에 과녁을 두고 연습했다고 한다.

활터 뒤편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장인·장모 묘와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 이면 공의 묘소가 있다. 이순신 장군의 묘는 현충사에서 9km 떨어진 아산시 음봉면에 있다. 이순신 장군은 1598년 11월 19일 남해 관음포에서 전사했다. 유해는 마지막 통제영인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 모셔졌다가 아산시

금성산을 거쳐 이곳으로 이장됐다. 묘는 부인 상주 방씨와 합장묘다.

현충사는 본전이 있는 꼭대기까지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길이다. 길이 널찍해 여럿이 걷기에도 좋다. 다만 경내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길은 그늘이 없다. 더울 때 방문한다면 모자, 양산 등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매점 또한 없으므로 물은 싸오는 것이 좋다.

현충사는 하절기인 3~10월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

고유선 기자

“국립자연휴양림서 숲속 여름휴가 즐기세요”

6월 9일부터 추첨 접수 시작

울창하게 우거진 숲과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에서 색다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첨이 시작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5월 26일 밝혔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6곳 중 경기 양주시 아세안자연휴양림과 경기 양평군 중미산자연휴양림, 강원 인제군 방태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여름 성수기 추첨에서 제외된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회원국 출신자 우선예약만을 진행하며 중미산자연휴양림과 방태산자연휴양림은 현재 시설 개선 공사 중이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

달음산자연휴양림. 사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에서 미당침·미결제된 객실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대야산자연휴양림 숙소 최고 경쟁률 77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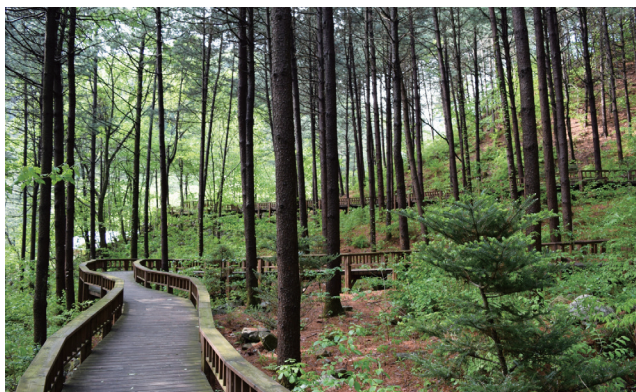
2024년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추첨 예약 신청 접수 결과에선 인천 무의도자연휴양림이 2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의도자연휴양림은 인천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으로 하나개해수욕장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 서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주변에는 등산 코스가 잘 정비된 호룡곡산·국사봉과 실미도 유원지 등도 있다. 이어 대야산(14대 1), 변산(11대 1), 신시도(10대 1)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한편 경북 문경시의 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601호는 평균 경쟁률 77대 1을 기록하며 국립자연휴양림 중 최고 명소로 꼽혔다. 이 객실의 경우 8월 3일 당일 경쟁률은 378대 1을 기록했다. 2024년 성수기 추첨에서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야산자연휴양림은 대야산 용추계곡 안에 자리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청정 계곡수가 소나무, 참나무 등의 휴양림 바로 옆에 있어 빼어난 경치와 시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숲속의 집 601호는 단독 휴양시설 형태의 14인실로 80㎡ 규모다. 다른 숙박시설과 완전히 독립된 객실에 내외부 시설도 현대식이라 인기가 높다.

야영시설의 경우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야영데크가 평균 경쟁률 10대 1로 가장 높았다. 201번 야영데크는 다른 데크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된 공간을 추구하는 휴양객의 취향을 반영했다. 특히 무명폭포와 회동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명당 데크'로 꼽힌다.

푸른 숲속 휴양림에서 건강한 휴식!

울여름에는 걷기 좋은 숲길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을 후보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5월 16일 숲길이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강원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만㎡



(위) 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아래) 무의도자연휴양림. 사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에 이르는 소나무숲에 자리하고 있다. 2017년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된 이 숲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워 산림욕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강원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건기연맹에서 공인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있다. 휴양림 내에 있는 이 길을 지나 백운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며 숲길 중간에 있는 팔각정에서 원주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에는 '산림청 1호 치유의 숲'이 있다. 소원을 비는 바위가 있는 숲길은 완만해서 산책하기 좋다. 휴양림에 산림치유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어 명상이나 숲속 체조 등의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경북 봉화군 청옥산자연휴양림은 해발 700m에 있어 사계절 공기가 맑고 숲이 깊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낙엽송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5~6월 개화하는 함박꽃나무가 휴양림 계곡 주변에 많아 은은한 향기로 물든 계곡을 따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가 좋다. ●

강정미 기자

37세 ‘작은 거인’ 신지애가 낭보를 전했다. 5월 11일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한 것이다. 이날 신지애는 최종 합계 7언더파로 일본의 후지타 사이키와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5)에서 약 70m 세 번째 샷을 홀 30cm 앞에 떨어뜨리는 절묘한 웨지 샷으로 약 2년 만에 일본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우승 상금 2400만 엔(약 2억 3000만 원)을 받은 그는 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통산 상금 14억 엔(약 134억 9000만 원)을 돌파했다. 더불어 이 대회가 메이저로 승격된 2008년 이후 최고령 우승 기록인 모테기 히로미(2013년)의 36세 17일을 1년가량 더 연장했다.

남녀 통틀어 한국인 최다 66승 대기록

2018년 이후 7년 만에 살롱파스컵을 다시 품에 안은 신지애는 JLPGA 투어 통산 29승을 달성했다. JLPGA 투어 입회 전인 2008년에 거둔 2승을 더하면 31승이 된다. 이 중 메이저 우승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JLPGA 투어 영구 시드 조건인 30승에 단 1승만을 남기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평생 일본여자프로골프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우승으로 신지애는 통산 66승째를 거뒀다. 일본 31승 외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1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6승, 호주 투어 5승, 지금은 없어진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 1승 등을 기록했고 공동 주관 대회 등을 제외하면 승수는 66승이 되는데 최근 우승은 2024년 12월 호주여자오픈이었다. 통산 66승은 한국인 가운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다. 선배 박세리도, 동갑내기 박인비도, 그리고 남자 골프의 전설 최경주와 최상호도 정규 투어에서 달성하지 못한 경이적 인 수치다.

1988년 4월생인 신지애는 3개월 늦게 출생한 박인비와 더불어 이른바 ‘박세리 키즈’로 불린다. 신지애는 박세리가 1998년 7월 ‘덴발 투혼’을 발휘하며 최고 권위의 US오픈을 제패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골퍼의 꿈을 키웠다. 그후 17세던 2005년 아마추어로 KLPGA 투어 SK 엔크린 인비테이서

37세 신지애 통산 66승

작은 거인의 신화는 계속된다



신지애가 5월 11일 JLPGA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하며 통산 66승의 대업을 이뤘다. 사진은 2024년 10월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CC에서 열린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 모습. 사진 뉴스스

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프로에 입문한 뒤엔 쟁쟁한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국내 무대를 평정했다. 2007년엔 KLPGA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즌 9승에 최단 기간 통산 누적 상금 10억 원을 돌파했다. KLPGA ‘대상-다승-상금-평균타수’ 1위를 내리 3년 연속 독차지했다. 2008년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대회까지 모두 출전하는 강행군을 펼치면서도 LPGA에서 3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 가운데는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이 있었다. 이 해 그는 세계 4대 투어인 LPGA, JLPGA, KLPGA, LET에서 한 해에 모두 우승을 기록한 최초의 골퍼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LPGA에서 시즌 3승을 기록하며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등을 차지했는데 이는 ‘골프 여왕’ 박세리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1978년 낸시 로페즈의 달성 이후 31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신지애는 마침내 2010년 남녀 통틀어 아시안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JLPGA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본 무대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벌어들인 상금도 어마어마하다. 한국 무대 총상금은 약 21억 원, 미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151억 원, 일본에서는 약 135억 원을 손에 거머쥐었다. 한·미·일 3국 상금만 해도 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후원 업체와 맺은 계약금과 광고, 각종 부상과 기타 수입을 다 합치면 500억 원 이상이라는 게 골프계의 분석이다.

신지애가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 위업을 세운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함이다. 그의 전성기 시절 일본 취재진이 한국을 방문해 연습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 드라이버로 샷을 두 차례 했

는데 페어웨이에 떨어진 공 두 개의 간격은 1m에 불과했다. 깜짝 놀란 일본 취재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어 약 115m 남은 거리에서 신지애는 8번 아이언을 가볍게 쳤는데 핀 2m 옆에 떨어졌다. 당시 골프 취재기자였던 필자가 9번 아이언으로 한 번 더 쳐줄 것을 부탁하자 신지애는 지체 없이 샷을 날려 이번에는 핀 1m 옆에 붙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신기의 샷 '신(神)지애'

신기의 샷으로 '신(神)지애'라고 불리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짧다는 것. 특히 미국 무대에서 그의 비거리는 하위권이었다. 골퍼로서는 엄청난 핸디캡이다. 하지만 장타자가 쇼트아이언을 잡을 때 그는 5번 우드로 핀을 맞힐 만큼의 정교함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예를 들면 키 180cm 단신의 한국 농구 선수가 2m가 넘는 선수가 즐비한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득점왕에 오른 것과 다름없다.

퍼팅과 어프로치 등 빼어난 쇼트게임 능력도 비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 키 155cm의 약점을 딛고 전설이 된 원동력은 강력한 멘털이다. 하체 힘을 키우기 위해 15층짜리 아파트를 1층부터 15층까지 수없이 오르내리는 혹독한 훈련을 반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먹는 음식과 컨디션의 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를 바탕으로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유명하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이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이다.

30대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선수들 사이에서 '골프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신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신지애는 내심 여자 골프의 최고 레전드 아니카 소렌스탐의 통산 72승(LPGA)을 넘어서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

권종오 SBS 기자

1991년 SBS에 입사해 30년 넘게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모든 종목의 스포츠 경기 현장을 누볐다. SBS 유튜브 채널인 '스포츠머그'에서 '별벌스포츠'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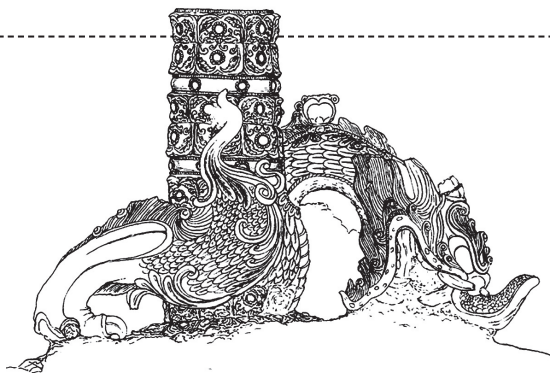
신의 작품? 성덕대왕신종 울림의 비밀

'성덕대왕신종', 동합금.
통일신라, 223.6×369.5cm.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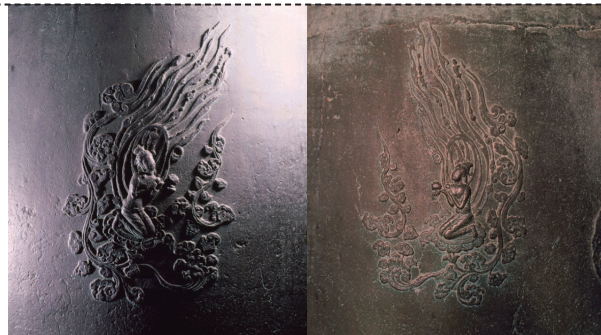
어느 해 여름이었다. 고향이라고 찾아갔으나 완전히 변해버린 낯선 장소에서 옛 기억을 더듬으며 하릴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남도의 8월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별경게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한낮의 열기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생이 고(苦)”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때 어디선가 범종소리가 “쿠웅~” 하고 울렸다. 그 순간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잡념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험뎅거리던 내면이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해졌다. 도심에서 범종소리를 듣는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그 소리

가 허공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맥놀이 현상도 신기했다. 그날 위로처럼 들렸던 해 질 녘의 범종소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칠 때에도 안식을 줬다.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은 범종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작품이다. 속칭 에밀레종 혹은 봉덕사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성덕대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대형국가프로젝트였다. 경덕왕은 성덕대왕이 승하한 후 부왕의 덕을 기리고자 구리 12만 근으로 대종을 주조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



‘성덕대왕신종’의 음통과 용 모사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

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덕왕의 아들 혜공왕은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신종 제작을 계속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771년 12월 14일에 신종을 완성했다. 34년 만의 성공이었다. 신종은 높이가 3.67m, 지름이 2.23m이며 무게는 18.9톤에 이르는 대작이다. 신종은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신종(神鐘)’이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 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비스러운 종이다. 언젠가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 독일학자 퀴멜 박사는 ‘조선 제1’이라고 적힌 신종의 해설문을 보고 ‘세계 제1’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도대체 신종의 어떤 부분이 그런 찬사를 받게 하는 걸까?

1037자에 밝힌 신종 제작의 이유

신종은 상부의 종고리와 하부의 종신(鐘身)으로 구성돼 있다. 종고리는 한 마리 용과 대나무 모양의 음통이 결합됐는데 쌍룡으로 구성된 중국·일본의 종과 차이가 나는 한국 종의 특징이다. 용과 결합된 대나무 모양의 음통을 보고 1980년 황수영 박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파식적을 재현한 것이라는 학설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용과 음통 아래로는 천관부터 띠 모양의 상대, 네 군데 연꽃이 장식된 연곽이 아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종의 중심에 해당하는 종신에는 종을 타격하는 당좌와 네 구의 비천상이 장식돼 있다. 네 구의 비천은 연꽃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으로 향로를 바치고 있는 공양비천이다. 신종의 비천상은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려하다.

비천상 옆에는 제작과정을 밝힌 1037자의 명문이 양각돼 있다. 마지막으로 종신의 하단인 종구 부분에는 극락에서 핀다는 보상화문이 장식돼 있는데 테두리의 여덟 군데가 아래로 살짝 돌출돼 있다.

신종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비법은 심금을 울리는 장중한 종소리일 것이다. 종소리는 타종하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듯 5~10초 정도 웅장하게 울리다 끊어지다가 싶으면 다시 2분가량 청아한 울림이 지속되다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 종 고유의 소리인데 종 전문가인 광동해 교수(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는 이런 맥놀이 현상을 두고 한국 종의 몸체 두께가 비대칭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해 여름, 무더위에 지친 현실을 잊게 할 정도로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소리의 정체였다.

위대한 작품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성덕대왕신종에 어린아이를 넣어 주조했다는 에밀레종의 전설이 첨부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종소리를 강조하다보니 인신공양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전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에밀레종의 전설은 종의 제작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우매함에서 탄생한 헛소문일 뿐이다. 성덕대왕신종은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에밀레종의 신비로움을 뒷받침할 더 멋진 스토리가 탄생해야 할 것이다. ●

조정욱 미술평론가

굽은 어깨 세우기! 핵심은 세 개의 근육이다

정용인·하부승모근·대흉근 강화하기

정용인
물리치료사로
유튜브 채널
'안아파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지내는 생활, 익숙하시죠? 이런 일상들이 쌓이면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등이 점점 굽어지면서 '라운드숄더'나 '거북목' 같은 자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자세 정도를 넘어 어깨 통증이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질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시작해 오십견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근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능형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입니다. 어깨 뒤쪽에 위치한 이들 근육은 견갑골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견갑골이 과하게 앞으로 돌출되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라운드숄더처럼 어깨가 앞으로 굽은 자세에서는 앞쪽 근육인 대흉근과 소흉근이 짧아지고 뒤쪽에 있는 능형근과 승모근은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짧아진 앞쪽 근육은 스트레칭으로 이완하고 약해진 뒤쪽 근육은 강화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치료나 운동이 이뤄지는 것이죠.

대흉근 스트레칭은 이 과정의 앞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앞쪽이 충분히 늘어나야 뒤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학술지 '피지컬 테라피(Physical Therapy)'에 실린 논문(Ludewig&Cook,

2000년)에 따르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지닌 사람의 경우 하부 승모근과 능형근의 근활성도가 떨어지고 상부 승모근은 과활성화된 상태를 보였는데요. 이는 어깨를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주요 근육들이 약해지면 통증이나 손상 위험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 스포츠의학회 학술지 'KSSTA(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에 실린 논문(Cools 등, 2015년)에서도 견갑골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면 어깨의 고유 감각과 신경·근육 제어 능력이 향상되고 부상 재발률이 낮아진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어깨 기능 자체를 회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인 셈이죠.

능형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잘 단련하면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매우 많습니다. 먼저 어깨뼈의 움직임이 안정되면서 관절에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고 등과 어깨의 자세가 정렬되면서 체형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또 운동 능력이나 일상 동작이 더욱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근육은 단순히 등 근육이 아닌 좋은 자세와 어깨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안정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쪽은 스트레칭, 뒤쪽은 강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어깨 통증 걱정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능형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잘 단련하면 어깨뼈의 움직임이 안정되면서 관절에 불필요한 충동이 줄어듭니다. 등과 어깨의 자세가 정렬되면서 체형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되고요. 일상 동작이 더욱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옆드려서 날개뼈 모으며 팔 들기

1 준비 자세

가슴 아래부터 골반까지
베개를 세로로 두고 옆드린 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주먹을 쥐고 양팔을 45도가
되도록 위로 뻗은 다음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하도록
어깨를 돌립니다.



2 운동 자세

양 주먹을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서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팔을 벌려 90도, 180도가
되도록 각도를 바꿔가면서
운동을 반복합니다.



3 반복

각도별로 5초간 10회씩
반복합니다.



주의사항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모이는 느낌을
느껴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K-연극으로 재해석한 셰익스피어 십이야

‘십이야’는 얹히고설킨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다. 17세기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 처음 공개된 이 희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돼왔다. 국립극단표 십이야인 ‘십이야 Twelfth Night’은 일란성쌍둥이 남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작의 서사 구조는 그대로 가져오되 조선시대 농머리(현재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일대)를 배경으로 한다. 배를 타고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원작의 설정을 우리나라 지역에 적용하고 사투리 대사를 더해 한국적 해학을 입혔다. 판소리와 랩을 활용한 음악, 옛것과 새것으로 만들어진 의상 등 조선시대와 21세기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무대도 흥미롭다. 전 회차가 ‘열린 객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발달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자극에 민감하거나 경직된 여건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을 위해 극장 환경을 조성한 ‘릴렉스드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기간** 6월 12일~7월 6일 **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영화

굴레굴레

‘웃으며 안녕’이라는 뜻을 가진 튀르키예 인사말 ‘굴레굴레’. 제목처럼 꿈과 사랑, 미련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절과 인연들을 마주한 뒤비로스 작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상처를 유머와 따스함으로 풀어낸 연출이 돋보인다.

개봉일 6월 11일



연극

컨선드 아더스

유럽에서 약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실제 중독 경험자와 그 가족, 의료진의 사례에 기반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약물중독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경험하는 고통과 침묵을 그려낸다.

기간 6월 12~15일

장소 서울 대학로극장 퀴드

엔들링스

전남 신안군 만재도에 사는 마지막 해녀인 할머니들과 미국 맨해튼섬에 거주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극작가 하영을 교차로 보여준다.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뒤를 이어갈 후계자는 없는 해녀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삶을 사는 하영. 인간과 지역의 다양한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며 삶을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기간 6월 13~14일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오페라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카를로 고치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했다. 극 중 왕자는 세 개의 오렌지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저주에 걸리자 진정한 사랑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콘셉트로 한 환상의 무대가 예고됐다.

기간 6월 26~29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

킬리안 프로젝트

현대 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안무가 이어리 킬리안. 그의 걸작인 ‘잇힌 땅’, ‘낙하하는 천사들’, ‘여섯 개의 춤’ 등 세 편을 묶어 한 무대에 올린다. 킬리안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국립발레단은 더욱 깊은 움직임과 섬세한 해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간 6월 26~29일

장소 GS아트센터

삶의 단면을 풀어낸 도자, 회화 그리고 조각

흙을 빚듯 꽃을 그리는 강준영 작가, 오리 가면을 쓴 어린이들의 모습을 조각작품으로 담은 조광훈 작가, 꽃의 덩불을 추상적으로 그려내는 허보리 작가의 작품들이 한곳에 모인다. 삶의 단면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세 작가의 사적인 시선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획된 'Talking yourself'전이다. 강 작가가 도예의 물질성을 회화적 표현으로 확장하며 독특한 입체감과 촉각적인 깊이를 더한다면 조 작가는 흙을 길게 늘려 쌓아 올리는 코일링 기법으로 독창적인 형태의 도자 조형을 제작한다. 허 작가는 식물을 의인화해 생동감과 리듬감을 불어넣은 작품을 완성한다. 세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탐색해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유해볼 수 있는 경험을 기대해도 좋다.

기간 6월 19일~7월 22일 장소 최정아갤러리



허보리, '배롱추상2', 2024

전시

문득, 한낮의 그림자 위로

대구예술발전소 15기 입주작가 12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온 작업의 결과물을 펼쳐 보인다. 자신만의 세계를 밀고 나가는 여정의 중간에서 잠시 새롭게 마주한 장면을 내보이는 것이다. 창작세계의 '한낮'을 향해 나가는 이들 궤적의 단면을 공유해보자.

기간 ~6월 20일

장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사진관 전성시대

사진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보는 사진관의 어제와 오늘을 담았다. 백일사진부터 약혼, 결혼사진, 생의 마지막을 남기는 영정사진까지 우리는 삶의 의미 있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삶과 맞닿아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기록의 의미를 되짚고 가까운 과거의 생활문화를 돌아볼 수 있다.

기간 ~7월 27일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

축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올해는 '모여라 충주로, 빠져라 다이브'를 주제로 내걸었다. 낮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활동과 공연·전시, 저녁에는 대형 운동장에서 즐기는 콘서트와 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상점 등을 이용하고 받은 1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물놀이, 어린이 기차, 클라이밍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 6월 12~15일

장소 충주종합운동장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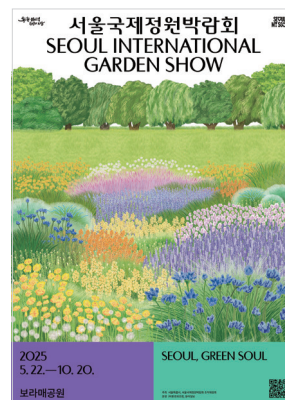
평택 실내악 축제

각 악기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음악가 40명이 모여 들려주는 실내악의 진수다. 바이올리니스트인 김현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간 6월 13~21일

장소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박람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 그린 소울'을 주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9만 6000m²(12만 평) 보라매공원에서 최장 기간(150일) 동안 이어진다. 정원에서 하는 캠핑, 독서, 음악감상부터 정원결혼식, 정원웨딩 스냅 등 새로운 '가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기간 ~10월 20일

장소 보라매공원 ●

이근하 기자

공감 한 마디

806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준 '6월 3일 투표소·신분증 확인 먼저, 모바일 신분증도 OK!'라는 기사가 정말 유익했어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젊은 세대가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소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돼 있어서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듯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이고 이런 정보가 잘 전달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 기사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상한 인천 서구

805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착한 가격업소' 소식이 위안을 주네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만 번째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는 김준길·신종숙 부부의 모습에서 선행과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점점 찾는 손님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은 착해도 정성은 넘칩니다"라는 말처럼 착한 가격으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오래도록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이동렬 경기 하남시

공감 한 장



주말에 산책을 하다 발아래 방긋 피어 있는 노란 애기뿔꽃 꽃을 보았습니다. 들꽃은 이렇게 무리 지어 필 때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어울려 살아가야 더 행복한 것처럼요.

김유리 경북 김천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facebook.com/wegonggam

blog blog.naver.com/mcst_pr

k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한 마디'와 '공감 한 장'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1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신고제란?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 ~ ③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물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80년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2025.06.2.(월)
-06.30.(월)

공모주제

국가상징(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및
국가 이미지 상징(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디자인

공모대상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 (*개인 또는 단체별 2작품까지 제출 가능)

공모부문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

공모방법

1차 예선: 공모전홈페이지(www.nationalsymbols.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차 본선: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실물 작품 제출(개별 공지)

시상내용

총 40점 / 5,690만원

-대통령상: 1점 (1,000만원)

-국무총리상 3점: 일반부 1점 (500만원), 대학생부 1점 (500만원),
고등학생부 1점 (300만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 기관장상(21점) 및
유관기관장상(15점)(3,390만원)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

(*수상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소통24,행안부 홈페이지 등))

-심사요소: 작품성, 조형성, 상품성, 상징성

-결과발표: 2025년 7월 중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2025년 8월 중



-수상작 전시: 2025년 8월 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

-홈페이지 Q&A 게시판 / 전화: 운영사무국 070-4938-6293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후원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fd a  FKI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BIZ 중소기업중앙회